후원회소식

통권 203호 | 발행일 2008.9.22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고시강행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통일뉴스]

·목·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출소 양심수를 찾아서 · 석달윤 선생님 노세극 • 7 / 기고 · 난생 처음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김영식 • 13 / 회원마당 · 추석맞이 전국양심수 면회투쟁' 참가기 임미영 • 16 / 감옥에서온 편지 김송인 • 21 / 오감시롱역사기행기 나정옥 • 22 / 산행기 • 24 / 시사강좌후기 편집부 • 26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8 / 슬픈일이 있었어요 • 30 / 이런일이 있었어요 • 31 / 재정 보고 • 43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44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 yangsimsu@hanmail.net

법치의 가면 속에 되살아나는 독재 망령

- 민주 세력의 폭 넓은 연대로 공안 폭력에 맞서자 -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명박 정부 출범 반 년이 지났다.

아직 새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종합평가할 시간은 아니다. 적어도 장담했던 경제살리기라도 지켜보아야 할 시간이다. 그래서 영어몰입교육이니 교육·의료 시장화시도, 각종 공기업 민영화 추진, 한반도대운하건설추진, 친기업반노동 지향, 강부자·고소영으로 불리던 인사행정,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비핵·개방 3000 구상, 한미동맹강화와 한·미·일 삼각동맹 추진 등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들이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자리잡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하며 일단 좀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활물가상승, 실업자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과 해고사태, 4·15 공교육 포기조치와 사교육비 증가, 영세업자의 휴·폐업사태, 환율 상승, 주가 폭락, 외환위기설 등 경제 파국사태 때문만이 아니었다.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협력시대를 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내팽개치고 미국과 한 목소리로 북핵 폐기만을 주장하고 심지어 이북을 선제타격 하겠다고 까지 하여 끝내 냉전시대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게 한 것만도 아니었다. 이른바 '한미동맹복원'을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에 가장 민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참여 필요성을 말하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한미군사협력체제 구축방안' 등을 외교통상부, 국방부가 대통령에 다투어 보고하더니, 끝내는 광우병 위험 때문에 이전 정권이 4년 동안 협상에서도 합의를 못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한미정상회담 바로 하루 전에 전격 타결시켰다.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이같은 쇠고기 협상타결을 국민들은 한미정상회담 선물용 조공외교라 했다. 그리고 쌓여진 불안과 고통은 분노로 표출되었다.

마침내 촛불이 타올랐다.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지핀 청계광장의 촛불은 온 국민의 가슴을 달구었고 100만 횃불이 되어 국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국회가 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이 나서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지키겠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죄하며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은 없었다. 추가 협상이 아닌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소통을 가로막는 '명박산성'이였고, 촛불의 뜻을 왜곡하는 '광우병 괴담'이었으며 어린 중학생으로부터 유모차를 몰고나온 주부들, 노동자, 농민, 4대종단, 4대정당이 한 목소리를 내며 자발적으로 나선 촛불대열을 모독한 '촛불배후론'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색소물대포와 군홧발 곤봉과 방패로 무장된 '백골단'으로 불리는 특별경비대를 창설, 맨주먹의 촛불시위자들을 토끼몰이식으로 무더기 강제연행 했다. 국민에게 사죄한 것은 국면전환용 빈말이었고, 그 말을 하는 동안 다른 손에는 비수가 잡혀있었던 셈이다. 5월 28일 113명, 6월 1일(5월 31일부터) 228명, 6월 25일 123명, 8월 5일 167명 연행을 비롯하여 지난 5월 24일부

터 8월 22일까지만 1296명이 강제연행되어 18명 구속, 1144명 불구속 입건, 즉심 56명, 훈방 38명(중·고생), 수사중 40명인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시민들이 외쳤다. 군사 정권 시대를 방불하는 공안탄압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을 뺀 야당에서도 공안정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초등학생으로부터 80노인에 이르기까지 임신부와 인권감시단, 취재기자, 국회의원, 변호사, 성직자에 이르는 무차별 연행이 이어졌다. 시위현장에서뿐이 아니었다. 경찰체포조는 색소 묻은 사람들을 무조건 시위자로 간주 무고한 시민을 연행하는가 하면 채증사진과 비슷하다 해서 시위와 관련 없는 시민을 추적·감시하고 출근길에 피의자 취급을 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고지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강요하며 10시간 이상 조사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피의자의 휴대폰에 통화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전화를 해서 '무슨 이유로 통화를 했느냐'며 일일이 확인하는 마구잡이 수사를 하기도 했다. 오죽 했으면 한 일간지가 '경찰 – 막무가내 촛불수사 – 유신시절 시국사범 다루듯'이라는 기사제목을 달기도 했다. 경찰이 이처럼 시위자 한 사람이라도 더 잡으려 혈안이 되고 있는 데는 검거 건수별로 점수를 매겨 표창과 상품권으로 포상하겠다는 경찰방침이 한 몫을 했다. 마치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공안당국에서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해냈던 냉전시대를 연상케 했다. 시위자를 상대로 상품을 건 '인간사냥'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한 가장 야만적인 반인륜 행패였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촛불 끄기 공안탄압으로 끝나지 않았다.

6월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기점으로 8·5 부시방한, 8·15 이른바 건국 60년 행사와 북경올림픽 등을 거치면서 무차별적 폭력 진압과 함께 광우병 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에 대한 파상공격, 방송·언론장악 행패,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정국 조성 등 일시적 공안탄압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엄중한 도전양상으로 변모되고 있었다. 지난날 독재에 맞서 수많은 민족민주열사들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민주제단에 바치며 일궈온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고 수천·수만 양심수들이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며 지켜온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었다. 바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이 규정한 인간의 기본권이 유린당하게 되었다.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반민주 반인권 반노동적 국정운영기조는 유신체제를 비롯한 역대 독재정권의 유제를 받아 안고 있는 태생적 속성의 필연적 소산이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며 과거시대로의 회귀에 집착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구호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난 8월 26일 한나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의 홍준표 원내총무의 발언이 있다. '10년 동안의 진보좌파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좌편향정책을 바로잡는 정기국회(9월 1일 개원)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제약하는 반기업적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고 난 뒤 20여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10년 동안의 1470개 법안을 8개월 동안 검토했다.' 대통령령 부령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탈환'이란 말을 썼다. 마치 점령군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권교체가 되었으니 마땅히 집권당이 추구하는 정책 지향에 따른 국정운영 기조가 있어야 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전면적 개조의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위의 인용에서 보았듯이 지난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선 오만이 오늘 현실로 다가온 '공안탄압'이고 남북사이 경색국면이며, 민주질서 파괴와 인권 유린 파행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그 대응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 진압과 광우병-대책회의(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포함)에 대한 난폭한 공안탄압은 민주주의와 인권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에서 연유되고 있다. 수십만 대열이 억수로 퍼붓는 비를 맞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기까지에는 누구의 선동이나 '괴담'에서가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 습득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우려에 따른 자발적 참여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확신을 갖고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헌법상 권리인 의사표현을 했던 시위자를 경찰은 불법적으로 폭력진압 해산하고 강제연행, 구속 등 사법처리를 했다.

또한 촛불문화제(또는 행진)를 '광우병 괴담'이니 '배후세력'이니 하며 대책회의 참여단체인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를 전격 압수수색, 불법적으로 사무기기 등을 압수해갔다. 또한 미신고 일몰후 옥외집회니 교통방해 등 혐의로 진보연대 오종렬 상임공동대표와 집행일꾼들과 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외 집행간부들을 체포영장 발부로 수배조치하고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와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 황순원 민주인권국장, 참여연대 안진걸 집행간부(보석으로 풀려남) 윤희숙 한청부의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실제로 촛불행사마다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이란 해괴한 논리로 진보연대 지도부를 구속·수배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머리 숙여 사죄했던 미국쇠고기수입 전면개방의 잘못에 대한 적반하장이고 집권여당과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진보좌편향' 세력 척결의 신호탄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공안당국은 집회와 시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특정지역을 보수세력에게는 개방하고 민주세력에게는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위자 복면착용금지' 등 집시법 등 개악을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회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해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면책하겠다'고 하여 시위현장에서의 경찰의 폭력진압 방침을 숨기지 않았다. 마치 유신독재의 긴급조치 시대를 방불케 하는 민주질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이제야말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독재망령과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세력과 진보진영의 굳건한 연대들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친재벌(기업) 반노동 행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된 뒤 가장 먼저 전경련을 방문했지만, 민주노총위원장과의 면담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최소한의 의례조차 어겼다. 지난 8·15 광복절에 이른바 건국 60주년 특별사면을 하면서 부정비리 재벌총수와 기업인 등을 대대적으로 특별사면, 복권조치 하면서도 노동자는 단 한 사람도 석방이나 사면조치를 하지 않았다. 생산의 주체이며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용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자는 자본과 정권에 의해 이렇게 천대받고 착취, 억압당하고 있다. 더구나 '총파업 촛불시위주도'와 '이랜드 파업 지지' 등 혐의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노총건물 주변을 닭장차로 에워싸고 경찰병력을 풀어 50일이 가까운 오늘까지 24시간 감시 통제하고 있으며 진영옥 수석부위원장(9월5일 보석으로 풀려남)과 정갑득 금속연맹위원장 등을 구속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제약하는 반기업적 규정을 철폐시킨다며 출자총액 제한철폐, 지주회사세 완화, 재벌·기업을 위한 세제 개혁 등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제약하며 사법처리와 손·배가압류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자의 총단결과 진보·민중 진영의 굳건한 연대로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장 만능주의에 맞서 노동 3권 보장과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언론 자유를 뿌

리체 흔드는 방송언론 장악기도이다.

YTN 사장을 대통령 특보 출신으로 앉히고 정연주 KBS 사장을 쫓아냈으며 광우병 보도 관련 'PD 수첩'을 몰아붙여 MBC 사장을 무릎 꿇게 했다. 특히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할 국가권력이 동원되어 이명박 정부의 방송 · 언론 장악 기도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 감사원만을 보아도 보수 · 냉전 집단인 뉴라이트 등의 국민감시청구를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감사를 하여 '개인비리'가 아닌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다. 이는 감사원법이 규정하는 해임요구 취지에 반하는 조치였다. KBS 이사장은 수천명 경찰력이 동원된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복경찰 100여명의 호위를 받으며 친여당 이사만으로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 18년 만에 경찰이 KBS에 진입하는, 법과 절차, 상식을 무시한 '언론 쿠데타'로, 언론 치욕의 날이라고 언론들이 개탄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 오른팔격인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 주선으로 지난 8월 17일 청와대에서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재천 한국방송 이사장이 한국방송사장 응모예정자들과 회동하는 등 청와대가 새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 있음이 들어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새로 임명된 KBS 이병순 사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겠다'고 했다.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등으로 과거 방송위원회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었던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 등을 겨냥한 것으로 언론들은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3항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하는 발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개법' 등을 개정하며 신문 · 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턱을 낮추려고 한다. 바로 조 · 중 · 동 등 자본력을 가진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다. 신문 · 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미디어 소유집중이 심화되어 여론 독점 현상이 강화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의 다양성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 뻔하다.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방송 · 언론 장악 기도는 지난 10년 동안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싹을 송두리째 베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영구집권을 노린 독재 망령에 맞서 '방송 장악, 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 행동'을 중심으로 폭넓은 연대투쟁으로 언론자유를 지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정국 조성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상정한 토대에서 목적수행, 자진지원 · 금품수수, 잠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죄 등을 적용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반통일 반인권 악법의 적용 또한 이명박 정권의 '잃어버린 10년'과 무관치 않다. 지난 10년의 진보좌파 정권이 친북 퍼주기를 했다며 자주통일 운동이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1월 2일 14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 구속, 1월 29일 김형근 교사 구속, 2월 19일 실천연대 송현아 선전위원장 구속, 2월 27일 범청학련 윤기진 의장 구속되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범불교대회를 앞두고 8월 26일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관련자 7명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8월 27일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합동으로 이른바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을 발표했다.

여기서 위장 간첩사건은 피의자 진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탈북자들조차 북에서의 활동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말하는 등 당국에서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만든 사건이라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밖에는 자주통일운동 탄압과 사회주의 지향 탄압이라 할 수 있다. 사노련은 자주통일운동과는 달리 사회주의를 지향한 노동운동 단체로서 이러한 성격의 사건으로는 80년대의 전민노련(1981년), 서노련(1986년), 남노련(1987년), 인

민노련(1989년) 사건과 1990년 사노맹 사건, 2001년 진보의련 사건이 마지막이었다. (진보의련 사건도 200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혐의가 무죄선고 되었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검찰과 경찰은 증거보완을 하여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씌우겠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지향했다 해서 탄압하는 것은 사상·양심과 결사의 자유 침해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두고는 자주통일 세상도 평등세상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6·15, 10·4 공동선언 시대 이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사상·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각 사건별 대책기구들이 연대하여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철폐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반년을 맞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가졌다.

촛불집회에 함께 했던 여학생이 질문을 했다. "촛불집회는 광우병 소고기를 비롯해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경쟁교육과 같은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두 번이나 사과를 하면서 뼈저린 반성과 소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광우병 대책위 활동가를 비롯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했다던지, 아고라에서 여론을 이끌었던 네티즌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색소 물대포나 백골단까지 부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소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 민심을 계속해서 강제력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제2의 촛불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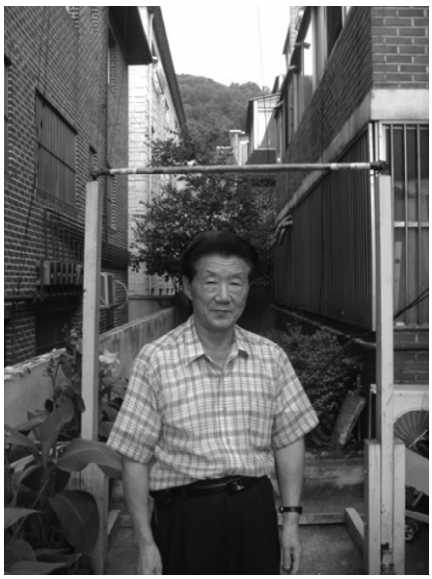
대통령이 대답했다. "(촛불집회에) 참여만 했지, 주동자는 아니죠"라며 "촛불집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시민이 물러나고, 나머지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나갔다... 앞으로도 법을 어기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것은 강력하게 법에 의해서 처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를 내세우며 공안탄압의 정당성을 말했다. 그리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극구 엄호했다. 이것이 오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기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고 저항이 쌓여지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다는 것을 권력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공 독재의 쇠사슬에 찢긴 18년 세월

- 석달윤 선생님을 찾아서 -

노세극 | 취재 정리 · 안산 통일인사 후원회장 ·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 상임 공동대표



권오헌 선생님으로부터 석달윤 선생님의 근황과 재심청구 진행과정 등에 대해 취재를 하라는 전화를 받은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나는 계속 미루기만 하였다. 차를 타고 가면 10여분이면 되고 한 두어 시간 이야기하면 될 것으로 쉽게 생각하였는데 막상 그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무슨 놈의 회의니 수련회가 그리 많은지…… 작심하고 간 날이 9월 7일 일요일이었다.

석 선생님과의 인연은 오래되었다. 둘째 아들이 석권호인데 안산에서 같이 노동운동을 하였다. 동양기공이라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노조위원장을 하기도 하였고 나와 같이 활동가와 선진노동자들이 모인 한벗노동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도 한 사이였다. 그 석권호 동지로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 때는 아직 수감 중이셨다. 그러다가 석방되고나서 칠순잔치를 안산에서 하신 적이 있었다. 그 때 처음 뵈었었다.

1998년도에 석방되고 서울 이문동에서 살다가 2002년도에 안산으로 이사를 오셨다. 안산에는 통일인사 후원회라고 조직되어 있는데 한평생 통일운동을 해오시거나 민족에 헌신한 선생님들의 뜻을 기리고 모금을 하여 얼마간의 후원을 하기 위한 모임이다. 모두 네분이 계셨는데 표문태 선생님, 김병권 선생님, 박기래 선생님 그리고 석달윤 선생님으로 이 중 표문태, 김병권 선생님은 이미 돌아 가셨다.

선생님은 안산시 월피동에 살고 계신다. 그전에도 선생님 댁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 가는 길은 익숙한데 전에 살던 곳에서 두 집 건너로 이사가 있었다. 전과 같이 다세대 주택의 1층에 사신다. 방문하니까 선생님과 사모님 두분이 반갑게 맞아 주신다. 거실로 들어서니 아예 상 위에 포도를 올려놓고 방석을 깔아 놓고 차를 준비하고 계셨다. 인사를 하고 상을 가운데 놓고 마주보고 포도와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물꼬를 터갔다.

- 어떻게 이사하게 되었습니까?

전에 살던 집은 32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다가오자 주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하자고 하였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지난 6월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가까운 이웃에 방이 나와 있어서 바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사는 집은 전세 6000만원인데 약 3000만원의 부족분은 서울에 사는 따님이 대주었다고 한다.

진도에서 태어난 선생님은 호적 상으로는 1934년

생이지만 실제 출생 연도는 1932년이라고 한다. 우리 나이로 올해 77세시다. 그런데 그 연세에 비해 젊어 보인다. 나는 그전부터 선생님의 건강 비결을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듣고 확인할 수 수 있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3시간 운동을 하는데 방에서 준비운동을 하고 나와서는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 70회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인근 노적봉 산을 한바퀴 돌고 온다고 한다. 집에 오면 7시인데 그 때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날을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고 한다. 선생님은 턱걸이 예찬론자다. 그래서 허리가 꼿꼿하다. 집 옆 공간에도 턱걸이 할 수 있도록 철봉을 설치하였는데 나중에 나가서 한번 해 보시라고 하였다. 70회를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열 번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열 번 하는 식으로 하여 70회를 한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인터뷰를 마친 후에 선생님더러 한 번 해보시라고 하였더니 철봉에 매달려 몸을 앞뒤로 흔들더니 쉽게 올라갔다.

- 턱걸이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맞고 고문을 당하였는데 허리가 망가져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철봉에 매달리면 허리가 펴지지 않을까 싶어 턱걸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문 후유증에 벗어나기 위한 턱걸이는 이제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온몸이 찌뿌둥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완전히 습관화된 것이다. 그 때문에 같은 연세의 다른 친구들은 허리가 다 꼬부라져 있는 늙은이 모습인데 반해 반듯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더 젊어 보인다고 한다.

선생님은 아직 기력이 왕성하고 정정하므로 어디 일자리가 없느냐고 하신다. 공원관리 2년, 산불감시 1년을 하였는데 50,60대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지 않으나 연령 제한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 이제 공공근로 보다는 선생님의 주특기인 서예를 주업으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서예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지에 오르신 분이다. 옥중에 있을 때 이미 국전에 입상 4회, 전북도전에 7회 입선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는 경기도전에서 입선하였고 올해는 안산에서 열린 단원미술대전에서도 선생님의 작품이 서예 부분에서 입선을 하여 10월 3일부터 20일까지 단원전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교도소에 있을 때 억울한 옥살이를 한데 대한 분노와 한을 서예로 승화시켰다. 1995년도에 국전에 입상하여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에 참석하였는데 잠깐이지만 교도소 문밖을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때 도주의 염려 때문에 교도관 6명이 따라 나왔다고 한다. 그 때 그 일로 징역도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서예는 선생님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의 서예경력은 27년으로 한자 5체 즉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에 다 능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서예에 관심 있는 학교 선생님들인 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을 지도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예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다. 작품을 만들어도 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학원 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동사무소 같은데서 서예 공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알아보기로 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겠기에.

석달윤 선생님은 딱 6일이 모자라는 18년간의 옥살이를 하였다. 복역한 기간을 보면 장기수라고 할 수 있지만 여느 장기수 선생님과 달리 민족운동이나 통일운동을 하는 연장선상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다. 즉 운동권 출신이 아닌 것이다. 그저 한 평범한 생활인이 정권의 야수적 음모에 희생된 대표적인 조작간첩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폭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신군부정권이 취약한 자신의 정통성을 감추기 위하여 억지로 간첩사건을 만들어 내

어 대중조작을 감행한 것이다. 그 때 대문짝만하게 진도간첩단 사건이란 것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 선생님은 연행되기 전에는 어떤 생활을 하셨으며 어떻게 살아 오셨습니까?

"당시 진도에서 미역 양식업을 하고 있었지. 이것도 사업이라 상당한 자금이 들어갔는데 수협에서 돈을 빌려서 하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진 못하였지" 선생님은 과거를 회상하며 나의 물음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선생님은 진도농고 2년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편입시험을 쳐서 선린상고 3학년에 들어갔는데 학교 다닌지 5일 만에 6.25 사변이 터져 14일을 걸어서 진도까지 내려 왔다고 한다. 곧 진도에도 인민군이 진주하였는데 서울에서 피난 왔다고 하니까 인민재판에 회부되었다.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겨우 목숨을 구해 야간 경비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인민군이 퇴각하고 국군과 경찰이 들어오자 인민군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결처분 받을 수 있어 살기 위한 방편으로 경찰에 지원 의용 경찰관으로 지산지서에서 근무하다가 군에 입대했다고 한다.

제대 후 당시 인천 부평에 있었던 2년제인 경찰 전문학교를 나와 서울 시경에 잠시 있다가 청량리 경찰서로 발령이 나서 그 곳 정보분실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주로 대공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선생님은 174cm의 훤칠한 키에다 준수한 용모에 놀기도 좋아했던 모양이다. 한 3년 근무하다가 여성과 바람피운 일이 드러나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진도로 귀향하게 되었다.

– 연행되고 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런 고문을 받았을 텐데 어떠했나요?

1980년 8월 21일 그날도 바다에 나가서 어망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왠 건장한 사람들이 오더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끌려간 것이 서울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지하실. 제일 먼저 한 일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고서 군복을 갈아입게 한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놈이 달려들어서 때리고 통닭고문, 성기고문, 잠 안재우기 고문, 물고문 등을 차례차례 자행하였다고 한다. 통닭고문은 두팔과 두발을 묶고 그 사이로 몽둥이를 끼워서 테이블 사이에 거리치게 하면 전기구이 통닭처럼 매달리는 형상이 된다. 이때 때리거나 얼굴에 물를 붓는 것이다. 또 성기 요도에 볼펜심을 쑤셔 박아 검붉은 피가 줄줄 흐른 적도 있으며 고문한 자들은 계속 교대로 근무하면서 잠 안재우는 고문은 정말 참기 힘들었다고 한다. 온 몸에 피멍이 든 것은 물론 모이 통통 부어 얇은 고기를 쓸어 몸에 붙이기도하고 침을 찌르기도 했다고 한다.

바닥과 벽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폭신하였고 겉면은 비닐이었다고 한다. 물고문은 얼굴에 얇은 수건을 씌운 상태에서 한 말들이의 주전자에 있는 물을 들이 붓는다고 한다. 그러면 물을 안 먹을 수 없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질식하기도 했다고 한다. 질식했다가 깨어나면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또 고문이 반복되었다고 다. 그래도 버텼다고 한다. 그랬더니 전기고문실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온몸이 물에 적셔진 채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전기고문 하겠다고 하여 이제는 정말 죽는 가보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중정 수사관들은 온 몸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고문을 하게 되면 쇼크사로 죽게 되고 죽고 나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간단히 서류처리하고 화장하면 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다고 태연하게 말하였다고 한다. 이제 곧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 엄청난 공포가 밀려 왔다. '이제는 죽었구나. 징역을 살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이라도 보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쓰라고 하는 대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지옥보다 더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중정에서 48일을 있다가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한다.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이란 것인데 박양민이란 사람이 간첩으로 남파 되었는데 만나서 간첩을 방조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혐의였다. 그런데 박양민은 친척 고모의 아들로서 고종 8촌 형인데 해방 후 서울에 왔을 때 같이종로 누상동에서 하숙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다. 그런데 당시 박양민은 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대학 정외과 4학년으로서 이미 당시 좌익 운동진영에 가담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6.25 이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갖은 고문으로 8년 동안 8번이나 만나고 여러 가지 편의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혐의가 씌워졌다.

– 전에 경찰서에서 정보과 형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참작이 되지 않았나요?

"경찰로 근무할 때 대공업무를 하였고 교육을 많이 받았지. 당시 교육 받은 내용을 적어라고 해서 그대로 적었더니 이것이 도리어 문제가 되었어. 너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간첩의 생리를 아니까 더 잘 활용했을 것이라며 뒤집어 씌워 처음엔 부인하다가 고문에 못 이겨 그렇게 했다고 하였지"

– 선생님, 옛 중앙정보부 건물이 남산 유스호스텔로 바뀌었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어요?

중정 건물이 유스호스텔로 바뀐 것은 알지 못하였다. 바뀌고 하였으니까 한 번 가볼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 쪽은 아예 쳐다보기도 싫다며 고개를 저었다.

–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선생님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있는가요?

장재영, 박공심, 김종인 이렇게 3명이 더 있는데 장재영이란 분은 박양민 고종 형의 친구로서 서울의대를 나와 진도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2년 징역을 살았는데 현재 연세가 84–5세 쯤 되셨고 치매 상태라고 한다. 박공심이란 분은 박양민의 막내동생으로서 1년 6월의 징역을 살았고 김정인은 박양민의 외조카로서 사형을 받아 실제로 1985년 10월 31일에 사형 집행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정인은 석 선생님 보다 5살 아래인데 고문에 못이겨 이북에 갔다 왔다고 하였다고 한다. 서울 구치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얼마나 세뇌 당하였는지 북한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조사 받을 때 진술서를 여러 차례 쓰는데 한글자만 틀려도 몽둥이와 발길질이 날아왔다고 한다. 그렇게 열 번 스무 번 하다보면 하지 않았던 일도 한 것처럼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세뇌당하여서 이북에 갔다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되었다고 본다고 하였다. 실제 김정인이 이북에 갔다 온 증거로 북한 당국에서 받았다고 하는 반지는 북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약혼반지로 해명되었고 과거사 위원회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고문을 통해 한 사람을 파멸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8개월 후에 또 진도에서 간첩 사건이 만들어 졌는데 박동운씨 가족이 연루된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이라고 한다. 두 사건 사이에는 서로 연계가 없는 별도의 사건으로 다루어졌다고 한다. 그 분들도 현재 재심 청구를 하였다고 한다.

– 이후 오랜 수감 생활은 어떠 했습니까?

서울 구치소에서 무기 징역 선고를 받고 1981년 11월 11일 전주교도소로 이감 가서 출소 할 때까지 전주에서 지냈는데 허리가 부서져서 처음엔 잘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교도관들이 양옆에서 부축하여 겨우 의무실로 갈 수 있었다. 처음엔 인쇄공장에 출력하다가 서예 반에 들어가서 줄곧 서예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징역 살이의 고달픔, 억울함, 한 등을 오로지 서예에 몰두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서예반에는 신영복, 오병철, 박기래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같이 지냈다고 한다.

–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인데 어떠했는지요?

가족 들이 입은 피해도 막대하였다. 간첩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것은 물론이었다. 49세인 1980년에 들어가서 67세인 1998년 8.15에 나왔으니 자식들이 한창 공부할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자식 교육은 사모님이 어물 장사를 하면서 키웠는데 그 장사라는 게 광주리에 생선을 담아 머리에 이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장터 저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행상을 하였다. 5일장, 10일장, 2일장 등지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하도 고생을 많이 하여서 지금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한다. 허리가 하도 아파 병원에 갔더니 물렁뼈가 다 없어졌으니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사모님은 지금도 걸을 때마다 절룩거리며 걷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모님은 같은 진도 출신으로 연세도 석 선생님과 동갑이며 성함은 하말심 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모님께 여쭈어 보았다.

– 그간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며 "사람 같은 세상을 살았어야 말이제" 하고 긴 한숨을 쉬셨다. 석 선생님이 간첩으로 몰려 구속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그렇게 여자 혼자 벌어서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남편 옥바라지도 하면서 억척스레 살았다. 그래도 자식들이 착실하게 자라주어서 용하다는 말씀도 하셨다. 자식들이 어머니가 고생하며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 한 것을 알고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것 같았다.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간첩이 어떻고 저떻고 하자 "그래 내가 간첩 아들이다. 실컷 봐라"하면서 오히려 대들고 당당하게 나섰다고 한다. 이 처럼 가족들이 피해의식은 있었지만 주눅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셨는데 큰 아들은 천안에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둘째는 전주에서 사업을 하며 막내가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국장으로 일하는 석권호 동지이다. 딸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있었다. 그래도 큰 시련을 겪었지만 갈등이 없이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되어 있어서 그나마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다.

–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인가요?

큰 아들이 아버지가 수감 중일 때 결혼 하였는데 간첩 가족이라고 밝혀지면 결혼이 깨질 까봐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석방이 된 것을 안 며느리는 자기에게 거짓말 한 것에 분개하여 현재 집을 나가 별거 상태라고 한다. "나 때문에 큰 아들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별거 중이라 뭐라 말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이야" 모든 가족들한테 다 미안하지만 특히 평생 고생한 사모님과 큰 아들이 제일 마음에 걸린다고 하였다.

– 현재 재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선생님의 사건은 고문에 의한 자백에 기초한 재판이었다. 증거로 제출된 것이 수첩 두 권인데 당시 생활 기록만 들어 있어서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단서나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재판부에서도 이 수첩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고문 한 것이 입증되면 판결은 무효가 되고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고문한 수사관 수십 명 중 몇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총책임자는 김치환으로 2005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당시 중정 직원인 김병오는 이후 부이사관으로 까지 승진하였다고 한다. 진실화해 위원회에 김병오가 출석하여 대질 심문을 하였는데 그는 고문한 사실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묵묵부답을 하였다고 한다. 시효가 지났음에도 세상이 변했음에도 끝까지 발뺌을 하며 진실을 가리는 그들을 보고 이게 인간 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도 당시 교도소에서 완전히 망가진 몸을 보고 증언한 교도관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

축을 한 사실이 있어서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한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하며 자신들의 증언이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증언에 나서겠다고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연말에 진도에서는 선생님 사건과 박동운씨 사건 등 두건의 진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선생님은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조용환, 신인수, 김지홍 변호사도 물증 없이 정황과 자백만으로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함주명 선생처럼 자신도 명예회복이 되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 가장 고생을 한 가족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주고 싶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고생한 민가협이나 양심수 후원회 그리고 안산의 통일포럼 등에 후원금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였다.

– 진도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전두환과 그 하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전두환의 정치적 희생물"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MB정권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다시 이러한 권력의 희생자가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걱정되는 바가 많기 때문이었다.

–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그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책으로 낼 예정이라고 한다. 책 제목은 정하였는데 '5공 독재의 쇠사슬에 찢긴 18년 세월' 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원고지 1000매 분량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400여 매를 쓴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서예작품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생각인데 특히 4군자를 주로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야 치매도 예방되지 않겠느냐고 하신다. 그리고 서예를 지도하는 일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하신다.

그리고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자신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한 사모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신다. 지금도 선생님이 이 밥도 하고 빨래도 하시며 집안 살림을 도와드린다고 한다.

9월 11일에 또다시 석 선생님 댁을 방문하였다. 안산 통일인사 후원회 차원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사차 여러 동지들과 함께 방문한 자리였다. 항상 우리가 온다고 하면 집에서 막걸리를 빚어 놓으시곤 하였다. 그러나 사모님이 불편하셔서 이번에는 술을 빚지 못하고 포천 막걸리로 대신하였다. 선생님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같이 잡수셨다. 6시경에는 석권호 동지도 같이 자리를 하였다. 전에 비정규직 집회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시회봉사 명령이 떨어져 사회봉사를 하고 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아버지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받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감싸는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갖은 고생을 하였지만 노후는 행복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난생 처음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김영식 | 출소장기수 · 만남의 집

2008년 8월 10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목욕하고 나가 5시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영등포구청역에서 5호선을 갈아타고 김포역에 도착, 다시 인천공항행 좌석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7시 40분경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환전하고 기다리다 짐 검사하고 대기실로 들어가 9시경 비행기에 올랐으나 10시경에야 비행기가 이륙하여 천진에 11시 15분경 착륙했습니다. 안개는 자욱했지만 1800년대 서양인들이 농락하던 중국이 떠올랐습니다.

아편전쟁과 지방 군벌로 인해 나라가 기울어진 것을 모택동, 주은래 등의 지도자들이 군벌 사대 매국노 장개석 등과 싸워 천하를 통일해 나라의 기강을 세웠으니 너무나 좋아보였습니다. 우선 나는 간판을 보았습니다. 모두 주체적으로 한문으로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 정신에 살아가는 나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첫발디딘 인상이었습니다.

진황도에 가서 한국-이탈리아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천진에서 북경을 거쳐 진황도 가는 길 옆은 전부 백양나무 숲이었으며 아득한 벌판은 옥수수 콩밭 고랑만 가득했으며 양어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진황도에 도착하니 축구장 입구에는 조선족 동포들이 마중 나와 합세해 꽹과리를 치고 인민공화국기를 휘두르며 한판 신이 나 돌아가는데 서울에서 온 일부 관객이 왜 태극기를 들지 않고 인민공화국기를 드느냐고 항의를 해 인민공화국기는 내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중국아가씨한테 선물 받은 중화인민공화국기도 감추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입장은 검문이 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기장에 들어가 한국- 이탈리아전 축

구경기를 보고 다시 북경 고려장 호텔에 와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하고 나서 너무나 궁금하던 호텔 주변을 보려고 주위를 도는데 그곳도 전부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가다보니 애엄마가 어린애를 데리고 가는데 애가 진흙탕을 껑충껑충 뛰어가길래 내가 업고 가자고 했으나 안업히려고 해 중국 돈 20원을 주니 받으려하지 않아 나는 기어이 집어던지고 갔으나 호텔가는 길이 익숙치 않아 애를 먹었는데 그 애엄마가 따라와서 길안내를 잘해주어 호텔을 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호텔 뜰에 심어놓은 나무를 보니 찌광 나무가 부럽게만 생각되었습니다. 찌광은 알이 아주 컷으며 복숭아도 많이 열려 있었는데 아직 열매가 덜 익었습니다.

아침시간이 되었는데 나는 평소에 아침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아침을 먹지않고 그대신 빵 옥수수 고구마 계란 등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북경과학기술대학에 가서 유도경기를 관람하는데 역시 조선민족은 재주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나는 이북사람을 보려고 복도 화장실 옆에 가서 기다리다 북의 인사를 만나기는 했으나 너무나 냉정해서 말도 못 붙여보니 민족의 장래가 어둡게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만든 것은 외국군이 갈라놓은 조국을 통일하려고 수많은 애국민족이 죽어가면 반세기 이상이나 싸워 이겨 민주세력이 정권잡고 6.15 10.4선언을 발표하여 남북교류가 활발했으나 선거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대주의자 이명박이 당선되어 조국과 노동자, 농민을 버리고 침략자와 가까이 하니 그것이 싫어서인지 남쪽 사람들을 보기도 싫어할 정도로 미워했으며 아주 냉정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100여년 간이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교육을 못받아 어떤 것이 배인지 어떤 것이 사과인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이 아주 냉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씨(이완용 이승만 이명박)가 나라를 망하는 길로만 끌고 간다고도 생각해봤습니다.

지난날 대만 민진당 천수이비엔 총통이 취임한 이후에 머리 위에 미사일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만 지내다가 국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니 본토와 자유왕래하고 마음놓고 살아가게 되어 이 얼마나 좋은가도 생각해봤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재중한인회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가하고 고려장 호텔에 가서 쉬었습니다.

북경시 관광

원래 천안문 자금성을 구경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상 자금성은 못보고 천안문 광장을 돌아 동인당(중국에서 가장 큰 약국)을 보고 점심 먹고 북경 경기장에서 조선과 독일 여자 축구를 관람했습니다. 서울 올림픽 경기장은 엉성해 보이는데 북경경기장은 철을 엮어서 튼튼하게 아주 잘 지어져있었습니다. 북경의 옛 지명은 연경이라 경기장을 제비우리를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선여성들의 재주는 너무나 빛나는데 워낙 외국선수들의 덩치가 크고 신장이 길어서 한 5분을 남겨놓고 덩치공세에 밀려 조선팀은 0-1로 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이화원이라는 거대한 인공호수를 바라보며 인행거리를 걸러 이화원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잘 먹고 북경 왕부정 거리를 보니 질서가 잘 잡혀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로 가는 날입니다.

시간여유가 있어 식당 위 붕어양식장에 가서 남은 빵을 뜯어주니 고기들이 전부 모여들어 서로 빵조각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다 시간이 다 되어 북경비행장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비행장에서 짐 검사를 마치고 여기저기 구경하며 다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선의 유도선수 계순희 선수가 왔다고 난리법석을 떨어 가보니 진짜 계순희 선수가 가슴에 인민공화국기를 달고 있어 반갑게 악수를 청했으나 말은 못하고 사진만 찍고 시간이 되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비행기 타는 홀은 서울행은 8번 출구 평양행은 9번 출구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행기를 타고서야 알았습니다.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비가 억수로 쏟아져 비행기가 연착되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그 옆에는 인민공화국기가 붙은 고려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비가 와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다 안개 속으로 이륙하였습니다.

안개 속을 헤치고 얼마쯤 가다가 밖을 내다보니 구름이 날개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좀 더 가니까 앞이 훤해지며 밝아졌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저 밑은 구름바다였습니다. 구름이 뭉게뭉게 뭉쳐있고 구름산도 있고 구름평야도 있고 아주 볼만했습니다. 내 옆에는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도 구름바다를 보게 하였습니다.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늘 위에서 구름바다를 보기는 90년대 한라산 꼭대기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니 구름바다가 멋졌는데 이번에도 비행기에서 구름바다를 내려다보니 너무나 멋졌습니다.

중국을 처음 본 소감은 중국은 광활하고 아득한 지평선인데 그 넓은 평야에는 물이 고여만 있어 거의 다 썩은 물만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조국 내나라가 정말 아름답고 물맑은 산천이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이 아름다운 조국에서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조국을 사랑하고 더 맑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국군이 오랫동안 주둔해 있으며 땅을 무참히 오염시켰습니다. 국민은 외국군이 오염시킨 것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윗물이 혼탁하니 아랫물이 맑을 리가 없어 답답합니다.

오랜 세월 민족의 수난을 끝장내고 다음 세대에게는 이 비참한 역사를 안 넘겨주려고 온갖 고생을 다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니 사회가 발전이 안되고 정체, 후퇴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오는데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 올 때 짐을 부치고 물건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짐을 가지고 비행기에 타면 왠만한 건 다 압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말을 배워가야 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추석맞이 전국양심수 면회투쟁’ 참가기

임미영 | 후원회사무국장

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노당 주최로 꾸려진 ‘추석맞이 전국양심수 면회투쟁’일정이 시작되었다. 9월 1일에서 9월 6일 걸친 면회투쟁 일정은 안동교도소를 시작으로 김천, 대구, 순천, 광주, 장흥, 전주, 대전, 마지막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구속양심수를 면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후원회의 모성용 운영위원 구노회 이광렬사무국장 구노회 활동가 조민호님, 민노당의 변외성동지가 상시 결합하여 힘든 일정을 훌륭하게 이끌었으며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원영민사무국장,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김동운 운영위원이, 광주의 정형근 또 대구의 권경옥 용인의 김혜순 남양주의 김상훈 김나영 회원과 임미영 후원회사무국장 권오헌 회장님이 후원회의 일원으로 하루 또는 이틀을 근거리 결합을 해주었다.

이밖에도 각 지역마다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이나 면회에 참가하여 힘을 보태 주었다.

출발하는 날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집을 나설 때는 빗줄기가 굵어져 혹시 가는 길이 힘들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비는 경기지역을 빠져나가자 내린 흔적도 없었다.

약속시간보다 늦게 출발한 까닭으로 점심을 먹을 사이도 없이 차안에서 모두들 분주하게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 안동교도소에 닿았다. 오늘 면회일정의 첫 장소인 안동교도소에서 출발이 좋아야 하고 그 좋은 출발이라는 것이 열린 장소에서 동지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손이라도 맞잡아 온기를 전하고 근황을 묻고 명절을 맞아 더욱 외로운 처지에 빠져있는 심정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성과를 토대로 한 다음에야 투쟁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동교도소에는 이미 대구양심수후원회 원영민사무국장이 대구에서 차를 달려 와있었다.

소측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처음에는 장소이동접견을 허락하는데 난색을 표했지만 우리는 이번 면회일정의 취지와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고 소측에서는 소장의 재량권을 내세워 무리하게 우리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소측이 그런 무리한 논리를 주장하면 할수록 자가당착에 빠질 뿐이고 결국은 우리의 요구가 매우 합법적이라는 것을 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이 시간이 지체되어 3시를 훌쩍 넘겨서야 장소이동접견이 허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저들은 법이 보장하는 재소자접견권은 아량곳하지 않고 마치 큰 은공이라도 베푼 것처럼 생색을 냈다. 우리는 만만치 않은 출발에서부터 이번 면회일정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했다.

우선 이른바 일심회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이진강 동지를 만났다. 공안수라 독거실수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독거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사(病舍)에 수감되어 있었다. 병사수용은 필시 다른 수감자와의 소통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진강 동지는 원주교도소에서 지난 7월 출소한 변외성 동지와 만나자마자 격의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전부터 깊은 교류를 나누는 사이였던 지라 마치 의좋은 형제의 만남같이 보였다. 지난 5월의 공안수들에 대한 안동교도소측의 인권침해사건을 잘 마무리

하고 이진강동지는 의연하게 수감생활을 잘 하고 있어 우리의 근심을 들어주었다.

교도소내에서도 항상 운동가로서의 품성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진강동지는 타소에 있는 동지들과도 서신연락을 통하여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행여 공안정국을 맞아 일반재소자들은 물론 공안수들이 그 영향으로 고통을 겪지 않을까 염려했다. 병사는 따로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운동시간이 되어도 흙을 밟아보지 못하고 우레탄으로 포장된 건물옥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병사라고 지어놓고 정작에 재소자들이 흙을 밟아서 얻게 되는 정신이나 신체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교도행정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난 2006년 10월에 구속되어 이제 만 2년이 다되어가는 수감생활에서 이진강동지는 더욱 굳은 신념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훈련시키며 겸손하고 너른 성품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출소이후에 통일운동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 우리는 이진강동지가 있어 오히려 마음 든든해져서 굳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이어 쉴 틈도 없이 정창윤동지와 면회가 이루어졌다.

작년 여름쯤 만나본 모습보다 더 얼굴이 깡 마르고 지쳐보여 감옥생활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교도소의 불합리한 교도행정에 맞서 단식 등 여러차례의 투쟁과 그 성과물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소측과 맞서고 있었다. 소측에서는 정동지를 큰 걸림돌로 여기고 그런 결과로 지난 5월에도 소측의 농간으로 부정물품 소지혐의로 징벌방에서 갇히게 되었다.

정창윤동지는 이제사 자세하게 그 연유를 밝혀냈다. 부정물품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던 본드는 두꺼운 책을 뜯어내어 요약본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했으며 그것은 동지가 만든 3권의 책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일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흔히 비닐봉지는 세탁물을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것인 줄 소측도 다 알고 있었다. 소측은 정창윤동지가 법무부와 구노회 또 다른 동지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불허해서 영치시켜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타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이감되어 들어와서 그곳 교도소의 부당함을 알려주어 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올려달라고 바깥의 동지들에게 부탁한 것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개인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운동이나 집회시에 사람을 딸려보내서 캠코드로 정창윤동지를 촬영하는 등 야만적인 감시행동을 계속하였다. 정동지는 자신에 대한 개인감시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또한 정창윤동지가 포함된 사동을 주 4차례나 야간당직자들이 검방을 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는 같은 사동에 있는 타재소자들과 이간질을 시켜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측과 부딪쳐서 재소자의 권리보장을 얻어내고자 하는 정창윤동지를 따돌리게 함으로써—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지나가면서 발로 툭 찬다든지 하는 신체적 모멸감을 주는—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하였다. 교도소가 재소자들간의 인간적 소통을 도우지는 못할망정 비겁하고 치졸한 교도행정으로 재소자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고 있었다.

또한 교화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서 정창윤동지같은 경우 서예를 배우려고 2년이나 기회를 기다렸으나 서예실의 자리가 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배울 수 없었고 거실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도 붓펜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자료구입에 제한을 두어 아예 그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보화과정(중고급단계)도 올해 들어 폐지함으로서 기껏 배운 기초실력을 무용하게 만드는 등 교도소에서 지속적이고도 발전적인 교화프로그램을 가지지 않음으로 해서 교정교화사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은 또한 다른 국가기관에서나 다름없이 이곳에서도 일회적인 전시행정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재소자들에게 행해지는 개별처우라는 것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든지 올바른 교화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창윤동지의 경우처럼 대부분 감옥안에서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공동선을 위하여 투쟁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감옥이야말로 재소자들의 안정된 울타리가 되어 그들을 범죄로 내몬 부조리한 사회적 구조나 원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교정교화사업을 펼쳐 그들이 사회로 되돌아갔을 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한 개인에게 초법적으로 가해지는 이중삼중의 처벌에 대해 상급기관의 방치와 교정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교도소가 인권침해의 대표적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한사람이라도 이런 양심수들이 감옥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본주의 정권이 개처럼 짖어대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들 편재된 부의 성장만으로 이 사회의 선진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정창윤동지의 이런 이야기는 오늘 어제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만 매번 이러한 사실을 주시하고 개선시켜나가는 데 연대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우리의 임무임을 간절히 깨닫는다.

우리는 교도관들의 시간재촉—그것조차 임박한 시간에야 장소이동접견을 허용한 저들의 계략이다.—에 쫓기다시피 접견실을 빠져나왔으며 같이 간 사람들이 정동지를 그 불편부당한 곳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못내 안타까워서 한번씩 껴안아 주었다. 우리는 접견이 끝난 후 소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도소를 빠져나오니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어두운 한숨만 나왔다.

비가 오려하고 이미 날은 저물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차안에서 나정옥회원이 5일간 길떠나는 남편 모성용회원에게 싸준 간단김밥 몇 개 집어먹은 것 외에 다들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라 여간 배가 고픈 게 아니었다. 특히 우리 면회일정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건설노조원들이 우리의 저녁과 숙소를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인차 차를 내달려 그곳으로 가서 저녁을 먹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허기를 이길 길이 없어 우동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야 했기에 휴게소에 들러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고는 다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를 달렸다. 포항IC에서 포항의 최규만동지와 서울에서 먼저 내려온 조민호 김성환동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길떠나서 만나는 동지들이 얼마나 반갑든지 ...우리는 동지들이 안내하는 대로 포항시내를 지나 항만이 가까운 곳의 식당에 이르렀다. 차를 주차하고 식당 안에 들어서는데 세상 황송하기 그지없게 얼굴이 익은 동지들 그리고 양심수였을 때 이름만 듣던 동지들 또 그들을 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자와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동지들의 부인들이 거의 일렬로 서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세상에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맞아주어야 했었는데 말이다.

일행은 한 일없이 그러나 그들이 동지애로 맞아준 덕분으로 마치 개선장군이 돌아오기라도 한듯이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차려진 밥상 앞으로 앉았다.

바쁜 중에도 우리 일행이 온다하여 온 가족들이 모였다며 이미 우리를 기다리면서 마신 술로 다들 기분이 한껏 좋아져서 서로 술을 주고 받으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나야말로 그곳에 끼일 자리가 도저히 아니다 싶을 정도로 쟁쟁한 투사들이 감옥에서 나와 다시 가정과 일터로 돌아와 이렇게 끈끈한 유대와 동지애 속에서 함께 하고 있었다. 이야기며 술이며 음식이며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벌써 11시가 다 되었다. 우리는 동지들이 애써 마련해준 바다를 전망하는 숙소—우리는 정말 그런 호사를 누려서는 안된다고 한사코 말렸지만 그들은 또 그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것이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말았다.—에 들었다.

방에 들어 잠시동안 오늘 일정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안동교도소에서의 장소이동접견허용사실이 이미 타소와 공유되어 이후에는 일정이 그리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하고 이미 김천의 이지경동지의 장소이동접견은 추석전후의 가족면회신청 중 선택을 요구받고 있었다. 최선책은 장소이동접견을 요구하고 상황에 따라 일반면회를 하지만 그때에는 시간을 더 얻어내기로 했다. 그리고 가능한 양심수들에게서 소내처우문제라든지 개선사항 등을 이끌어내서 듣기로 하는 등 지혜롭게 대처하기로 했다. 나는 숙소로 돌아가 생각을 정리하고 잠에 들었다.

이튿날 이른 새벽에 깨어나서 베란다로 된 문 밖으로 내어다보니 바로 길건너편에 시퍼런 바닷물이 넘칠 듯 출렁거리고 있었다. 검은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은 수평선을 뒤덮고 있었으며 간간히 빗방울이 들고 있었다. 나는 일찌감치 떠날 준비를 하고는 기다리다가 약속시간이 되어 방문을 두드려 일행을 깨웠다. 아침에 들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포항동지들과 늦도록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것이다.

포항에서 출발해 약 2시간 후에 김천교도소에 닿았다. 비는 달리는 중간쯤에 쏟아졌다가는 이내 그쳤다. 김천교도소에 이르니 교도관이 크게 우리를 환영하는 교도소 정문 밖까지 나와 있었다. 우리는 그가 안내하는 대로 들어갔지만 이미 장소이동접견을 불허된 상태였다. 우리는 교도소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왜 장소이동접견이 불허되었는지 설명을 듣고자 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무슨 왕이나 알현하는 것처럼 고하고 또 고하여 소장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소장은 어제 안동교도소의 장소이동접견허용이 문제가 되어 우리의 면회일정에 대해 법무부가 지침을 내려 장소이동접견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 이상한 노릇이지 않는가. 우리는 면회일정을 공고했으며 그렇다면 법무부는 양심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면회일정을 지지하고 오히려 해당 교도소에 일정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이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이 아닌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각 법무부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해 그런 지침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대부분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행형법 제59조(접견의 장소)는 "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그 재량권이라는 것은 소장 개인의 자유재량권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귀속재량권으로서 재소자들에게 유리하게 행사되어야지 이렇게 재소자나 민원인들의 접견권을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법적 근거를 대며 소장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장은 막무가내였다. 소장이 그렇게 수상한 태도로 버티고 있는 동안 주임이니 과장이니 하는 소위 중간선의 담당공무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장의 방패막이가 되어 우리를 소장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그들이 측은하까지 느껴졌다. 소장은 이 이후에 어디로 가든 장접은 이루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까지 하며 여전히 소장의 재량권을 내세우는 게 고작이었다. 우리도 물러서지 않고 법무부의 지침에 대해 집요하게 캐묻자 소장은 변명을 일삼다가 심지어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식이나 여타의 투쟁을 부추기므로 허락해 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었다. 그런 가당찮은 이유를 내세우다가 결국은 우리를 놔두고 소장실을 나가고야 말았다. 소장의 비상식적이고도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보아 윗선(법무부))에서 차단하는 것인지 아니며 미리 알아서 몸을 사리는 것인지 수상하기 짝이 없었다.

이미 시간은 오후 2시를 지나 자칫 일반면회까지 못하게 될것 같았다. 우리는 일단 물러나기로 하고 이지경동지를 만났다. 아침부터 우리가 면회 온 것을 알고 있었던 이지경동지는 우리가 소장실에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공연히 자신 때문에 우리를 피곤하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좁은 접견실에 미처 다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저 구경이나 하듯 칸막이에 돌아가면서 창유리바닥에 붙은 성능나쁜 마이크에 대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우리는 어제 만났던 포항동지들의 안부를 전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 봄보다 머리카락이 길었을 뿐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면회 온 우리들을 다둑거려 주고 남은 기간동안 마음과 몸을 정리하여 다시 바깥의 투쟁의 대열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돌아가면서 마이크 앞에 입을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느라 도데체 정리가 되지 않은 우리와는 달리 이지경동지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마이크가 꺼져버리고 우리는 손을 흔들거

나 웃음을 지어보이며 가로막힌 플라스틱 벽 속에 있는 이지경동지와 헤어졌다.

당연히 소장의 모습은 그 후에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다음 장소인 대구교도소의 면회시간을 놓치게 될까봐 바삐 차를 몰아 대구로 달렸다. 대구에는 우리가 온다는 소식으로 직장에 서 조퇴를 하고서 경옥이(권경옥—나와는 절친한)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천교도소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경옥이는 교도소 근처에서 한참동안을 기다리게 되었고 4시를 넘긴 시간이라 당연히 그곳에서도 면회를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

이미 대구교도소에도 이른바 아랫사람으로 분류되는 계장이니 주임이니 하는 사람이 아예 우리를 높은 선까지 이르는 것을 차단하느라 바쁘고 긴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이희만(포스코)동지와 이른바 일심회사건의 손정목동지를 만났다.

모성용 권경옥 원영민 임미영은 손정목동지가 기다리는 좁은 접견실로 들어갔다.

손정목님은 소년처럼 맑아진 모습으로 그저 서울로부터 온 우리에게 거듭 자신은 잘 지내고 있으며 이명박정권 이후 전방위로 자행되는 공안탄압공세에 바깥에서 잘 이겨내기를 걱정해주었다. 그렇게 밝은 모습은 다소 지친 우리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었으며 그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생업으로 바쁘고 힘든 부인 김정라님과 두 따님의 모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련해지면서 아파왔다. 연신 자기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를 안심시키는 손정목동지와는 10여분의 짧은 시간동안 속내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동지의 표정에서 묻어나오는 강한 연대감을 확인하며 돌아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희만동지의 소식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그것으로 이틀간의 일정은 끝이 났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아 힘들다 했는데 그렇게나마 안에 있는 동지들을 만나고 나오니 이번 면회일정을 계획하여 실행하기를 잘했다 싶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교도소 앞에 잇는 국밥집에 들어가 간단하게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퉁명스런 국밥집 아주머니의, 그런대로 맛이 있는 국밥을 먹었다.

그리고 조민호 변외성 모성용 이광렬동지—이런 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동지의식이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모두 동지라고 불러 힘을 얻고자 한다—에게 이후에 이어질 일정에 같이 할 여러 동지들의 건투를 빌면서 남은, 쉽지 않은 일정을 당부하고는 원영민 권경옥 김성환님동지는 대구에 남고 나는 원영민사무국장이 태워다주고 친히 기차표까지 예매해주어 여덟시에 동대구역을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대구경북지역의 양심수후원회 일을 도맡아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일정에 기꺼이 같이 하고 또 대구경북지역의 양심수들의 면회를 도맡아 그들과 바깥과의 소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원영님사무국장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이틀간 합류했던 면회일정 보고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이후의 일정의 상세보고는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김송인 님의 편지

양심수후원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화물연대 김송인 늦깍이 수감자 이렇게 후원회의 소식지 및 영치금을 받아보며 민중들의 현장삶 속에서 많은 것을 몸소 실천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글자 올려봅니다.
무더위가 몰아칠 무렵 들어온 이곳 생활이 새삼 낯설고 또다른 삶이라 일면의 거부감이 몰아치더니만 급한 것이 세월인양어느덧 3개월이란 시간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종종 언론 매체에선 촛불집회 및 국보법 집시법들이 난무하는 퍼내기식 민중탄압에 여념이 없는 현 이명박 정권의 언론길들이기를 보노라면 과거로의 회기보다 천박한 정치관념에 수반된 물물가리지 않는 개망나니 정치현상이 현 쇠고기 문제 및 경기 침체와 민중의 이분화된 양극화는 과거 군사독재 상황보다 더 악한 처지로 들어가고 있나봅니다. 또한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준 8.15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보노라면 무지의 극한을 보여주는 것임을 시인하는 듯 사회봉사 형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특사에 포함된 것과 일반잡범보다 야비한 김승현회장이란 작자들이 포함됨은 어쩌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힘없는 민중들의 고통으로 치부하고 자인하는 것임을 알아봅니다. 허나 태양은 흐르는 구름에 잠시 보이지 않음을 현정권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도 분연히 일러선 민중투사들이기에 제 정비하여 소스라치게 몰아치는 민중의 거대한 파도가 되리라 기원하여 봅니다.
비록 얽매인 몸이지만 마음까지 저들에게 묶인 것이 아님에 다시 한 번 가둔다 하여도 조그마한 힘 출소하여 함께 뛰어 보렵니다. 아마도 전국구치소에 계신 다른 구속동지들이 마음또한 그러하리라 보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상하지 않길 바라며 두서없는 글 올려봅니다. 투쟁!

2008년 9월 1일 수원구치소 화물연대 김송인 올림

*김송인님은 9월 초순에 출소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시는 글

10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122회)

■일 시 : 2008년 10월 14일 (화) 오후 6시
■장 소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작 품 명 : 옥류풍경 제1부(조선예술영화촬영소 , 2000년제작, 63분 상영)
■줄 거 리 : 순애의 삼촌은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옥류관 냉면 요리사인 한기와 부딪혀 서로 안좋은 첫인상을 남긴다. 순애는 세계대회에서 상도 받은 피겨스케이팅 선수인데 삼촌은 순애를 시집 보내려고 노력한다. 순애는 수첩을 버스에 두고 내리고, 그것을 주려고 한기가 쫓아갔지만 삼촌과 부딪히면서 순애를 놓친다. 한기는 순애의 수첩에서 그녀의 일기를 본다.
■문 의 :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땅에 펼쳐진 별빛 –메밀꽃밭에서 웃음짓다.

나정옥 | 후원회원

차창 밖으로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익어가는 논이 보이고, 몽게동실 하얀구름 파란 하늘 아래로 진초록 산들을 지나 버스는 평창군 봉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느 때와 같이 버스 안에서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정겹게 잔을 나누고 아이들은 끼리끼리 어울렸습니다. 편안합니다. 혜순씨가 머리에 이고 온 먹거리 보따리를 풀어놓으니, 그 중에서도 오이는 달콤하고 보리개떡은 입에 착 붙어서 그 맛이 만족스럽고, 그 정성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부지런히 달린 차는 이윽고 봉평으로 들어서고 사방이 짙은 초록산들로 둘러싸인 시골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 앞에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메밀화전시 중인 건물안으로, 조각품이 널린 앞마당 잔디밭 속으로, 개짖는 소리가 사나운 뒷마당으로 흩어졌다가 다른 밭들보다 먼저 꽃을 피워낸 메밀밭으로 다시 모여들어 사진을 찍습니다. 서로 찍고 찍어주면서 그 환한 메밀꽃밭에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보태줍니다. 버스 안에 오랫동안 갇혔던 아이들은 잔디밭 마당에서 조각품들 사이로 아이들다운 소리를 내며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봉숭아 꽃잎을 비닐봉지에 따서 담고 버스로 돌아오다가 이상하게 생긴 걸 봤지요. 처음에 볼 때는 호박꽃이 핀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울뚱불뚱 그대로 호박아니겠습니까? 색색깔 여러 가지 호박은 본 적이 있지만 저런 모양은 처음 봅니다. 아마 그래서 집주인이 심어키웠나 봅니다.

저녁 먹기 전에 들렀던 이효석 생가는 다음에 봉평에 다시 오게 된다면 이곳엔 다시 안올것 같습니다. 주인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다가 주위에 음식점들만 들어서 있고 별다른 의미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꽃이 핀 메밀밭을 그려놓은 커다란 그림을 걸어놓은 식당에서 메밀로 저녁을 먹으면서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 차에 올라타자 바로 이때다 싶어 기사아저씨가 트럼펫 연주를 해주어 모두를 기쁘게 해주었는데 연주가 끝날 무렵 갑자기 밖에서 폭죽터지는 소리가 나서 얼른 내다보니 캄캄한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한창입니다. 연주가 끝나기 전이라 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세미랑 얼굴을 창문에 바싹 붙이고 밤하늘에 펼쳐지는 그 황홀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빠져듭니다.

하룻밤 머물 곳은 민박집입니다. 밥집이 아니라서 뒤풀이 음식을 손수 장만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세미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나니 피곤이 물씬 몰려와 그만 쉬고 싶어졌습니다. 장만한 음식을 안주로 술자리를 펴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박수치며 게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뒤풀이 자리에 눈도장만 찍는 척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큰 아이들은 저희들대로 어울려 오늘 밤만의 추억을 만들고 아직 거기 끼기엔 나이가 어린 성원이, 소연이, 세미는 마루에 앉아 티비로 만화를 봅니다. 마당밖에서 하늘을 보니 구름이 꼈는지 별들은 보이지를 않고,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사람들 소리에 섞여 가만가만 들려왔습니다.

졸려서 저를 찾는 세미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깔고 조금 아쉬우나마 하루를 이만 닫습니다.

황태국에 나물반찬에 부담없는 아침식사를 맛있게 하고, 짐을 숙소 방 하나에 몰아넣어둔 다음 월정사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맑은 물 하얀 바위 계곡 위로 아이들은 손잡고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전나무 숲길은 포장했던 길을 다시 흙길로 복원공사를 하느라고 길을 막아 놓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지요. 얼마 전 신문보도에서 보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터라 아쉬움이 많이, 많이 남습니다.

.

상원사입구에서 만난 두 분이 관대걸이와 동종, 고양이석상들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단풍나무와 고로쇠나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가르쳐주어서 알게 되었는데, 고로쇠나무는 잎이 다섯 갈래, 단풍나무는 더 많은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적멸보궁까지 가는 숲길에서 고로쇠나무를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하,하,^^)

다른 날 보다 일찍 일어나서 살짝 졸리운 세미를 아빠가 업으면서 걸리면서 올라갑니다.

오대산 사자암을 오르는 숲길은 계단길입니다. 아이들은 톡톡 튀듯이 가볍게 오르지만 여름내내 집에서만 지내면서 운동도 안한 저는 힘이 듭니다. 아빠가 세미를 도맡아 주어서 저는 홀가분하게 오르는데도 마음만 가볍지 두 다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도 좋기만 합니다. 19년만에 다시 찾은 오대산 자락, 처음 올라 그 품에 안겼을 때의 느낌처럼 푸근하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언제나 도착하나 속으로 에고야 하기 직전 사자암 지붕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세미와 여기까지, 저는 혜순씨와 동무하여 적멸보궁을 향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적멸보궁 거의 다 간 지점에서 샘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고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고 올라가자 일행들이 계단 숲그늘에 앉아 설법을 들으며 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쉬고 앉았다가 사자암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사자암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로서는 꼭 한 번은 경험하고 싶던, 첨 먹어보는 절집 밥이었습니다. (배가 덜 고파서 입에는 별로였지만 밥을 입으로만 먹는 것은 아니지요.)^^

적멸보궁에서 내려오는 길에서부터 다리가 살살 떨려왔습니다. 좀 무리가 되었던 모양이지요.(집에 와서 사흘간 쑤시더군요.) 다리에 힘이 없어 내려오는 길은 차에 오를 때까지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랑 계곡에서 물과 노는 사이 다른 사람들은 아침을 먹은 그 밥집 나무그늘 아래 평상에 둘러 앉아 동동주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대충 마치고 민박집에 돌아와 아이를 씻겨 옷을 갈아입히고 짐을 갈무리한 뒤에 나무그늘 아래로 향했습니다. 파란 가을하늘 아래 산바람이 살랑쌀랑 시원히 목에 감기고, 그 바람에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답답한 고민들이 다 씻겨 사라지는 듯합니다. 오랜만에 맛있게 동동주를 마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술자리를 즐깁니다. 넉넉하게 안아주는 언제나 거기 있는 산과 물과 소나무 그늘 아래 바람을 타고 거리낌없는 웃음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슴속에 채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되돌아 같은 거리임에도 더 멀게 느껴집니다. 떠날 때에는 반짝이던 눈빛이 게슴츠레하게 풀려 작아지고, 가벼웠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지만, 복잡하던 머리 속과 답답한 가슴속은 맑아지고 가벼워져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의 답사를 모두 마치고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새롭게 재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내 감정을 잘 다스려가며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의 샘물을 퍼 올리는 '나'에 대한 비젼을 세워봅니다. 전보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다독거립니다. 생기어린 얼굴로 다시 나의 일상으로 씩씩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청계산에 다녀오다

편집부

상쾌한 아침이었다. 열대야현상에 때아닌 장맛비에 높은 습도에 시달렸는데 비하면 오늘 아침은 구름 한 점 없이 상큼한 날씨였다. 1시간이나 일찍 모이게 되었기에 평소보다 서둘러야 했다. 서울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가는데는 두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9시 정각에서 3분 늦게 도착한 원터골 입구에는 벌써 많은 회원들이 와 있었다. 나이 많으신 이순영선생님 김지영원장님 김재선산악대장 오랜만에 온 이병건회원, 어쨌든 김영식 김순자 강담선생님과 이정태산악대장(공동)이 원터골입구를 지나 옛골종점까지 가는 바람에 되돌아오느라 늦은 일을 뺀다면 대부분 9시 모이는 첫산행 성적은 매우 훌륭했다. 모두 22명이 산을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칠순의 이순영선생님이 건강상 이유로 산입구에서 남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대신 일행이 다시 산을 내려올 때 뒷풀이에 합류하기로 했다. 아쉽지만 남은 회원들은 본격적으로 산을 올랐다. 하늘은 맑고 공기도 좋다. 비온 뒤여서 나뭇잎들이 더욱 싱싱해 보이고 계곡 물소리도 요란스럽다. 6.15통일산악회 깃발이 언제나 앞장선다. 다른 등산가들이 깃발에 적힌 '6.15산악회'를 눈여겨 본다. 이날 청계산 산행에 깃발 든 무리는 우리 밖에 없었다. 기온은 다시 오르고 땀이 솟고 있다. 청계골 쉼터에서 또 두 분선생님이 뒤처지시게 되었다. 강담선생님은 다른 때도 중간쯤에서 기다리시곤 했지만 김영식선생님은 언제나 기운이 넘쳐 앞서 가시었는데 요며칠 위장장애로 식사를 못하셨기에 더 이상 무리해선 안된다는 스스로의 판단이었다. 열아홉명이 다시 산을 오른다. 워낙 일찍 떠났기에 조금은 한산해보이는 산행길이다. 그래서 편했고 주변경

관을 열심히 둘러보는 여유를 가졌다. 샘물이 철철 솟아나는 원터쉼터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곧장 가면 옥녀봉(375m)에 이르게 되고 왼쪽으로 꺽어가면 원터고개로 가게 된다 잠시 쉬었다가 왼쪽길로 떠난다. 원터고개 막바지엔 나무계단이 이어졌다. 이윽고 고개마루에 올라섰다. 우리가 정복(?)해야할 매봉에서 뻗어나온 능선의 잘록한 곳이다. 고개를 넘어 서쪽으로 가면 서울대공원과 과천저수지에 이르게 된다. 6.15일행은 원터고개에서 왼쪽능선을 타고 정상쪽으로 다시 나무계단을 오른다. 돌계단도 그렇지만 어쨌든 계단은 산행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기피대상이 되었지만 어쩔수 없다. 오르면 오를수록 시야가 넓어진다. 산에 오르는 매력이기도 하다 오른쪽으로 과천과 관악산이 왼쪽으로 구룡산 대모산이 가까이 보인다. 밝은 날씨여서 먼거리도 잘보이는 것이다. 넉넉한 산길 한 모서리에 모두 모여 쉰다 그리고 짐을 덜자는 핑계로(?)막걸리를 꺼낸다. 싱싱한 오이안주도 나왔다 이정태회원이 언제 준비했는지 튜브식 고추장까지 등장한다. 시원했다. 땀으로 빼앗긴 수분을 보충하는 정도가 아니다 막걸리의 그 특유한 톡톡쏘는 시원함이었다. 박희성 김영승선생님은 나이로는 제일 웃어른이시지만 산타는데는 젊은이에 앞서신다. 옛날 백운산 백아산을 넘나들던 그 위대한 힘이 남아 있은 모습일까. 다시 힘을 내어 돌문바위, 매바위를 지나 목표점이었던 매봉(563M)에 올랐다. 청계산 정상까지는 더 가야하지만 군사시설이 있어 출입금지구역이 된 것이다. 이 아름다운 산에 사람을 죽이는 쇠붙이시설이 있는게 참으로 역겹다. 서울서초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의왕시에 걸쳐있는 작지 않은 산이다. 바위투성이 관악산과는 대조적으로 흙으로 덮힌 숲이 울창한 산이다. 청계산의 원래 이름은 청룡산이었다고 한다. 고려말 3은의 한분인 목은 이색의 시에 – 청룡산 아래 옛절/얼음과 눈이 끊어진 언덕이 /들과 게곡이 잇닿았고나/ 단정히 남쪽창에 앉아 주역을 읽다보니 /종소리 처음 울리고 닭이 깃들려 하네 – 청룡산의 유래는 과천관아 진산을 관악산으로 볼 때 관아 좌편에 있는 풍수지리에서의 좌청룡형국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오른 쪽은 수리산이 있어 '우백호'가 되는 셈이다. 청계산으로 기록되기는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 부터라고도 하지만 알 수 없다. 다시 매봉을 뒤로하고 내려오다 우리 일행이 함께 할수 있는 편편한 곳에 자리를 잡고 점심식사를 했다. 산행에서 가장 골똘히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모두들 갖춰온 도시락을 펴놓으니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고 있다. 위를 채우고 늘상하듯이 참가자 소개시간을 가졌다. 이규재의장 등 범민련 후원회성원들 이계환통일뉴스대표와 성원들 통일광장 소속이면서 범민련고문이시고 양심수후원회원이신 김영승 박희성 김순자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산행 절반이상을 채운 양심수후원회원들. 마침 8월은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깃발을 올린지 한돌되는 달이다. 이규재의장과 이계환대표가 6.15산악회가 단순한 산행만이 아닌 우리민족의 염원과 지향에 부합되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말이 있었다. 이어 특별한 강사초빙을 못하여 권오헌대표가 지난 18~22일까지 진행된 이른바 을지프리덤가디언(UFG)한미합동군사연습상황과 평화 통일단체의 대응활동, 10.3합의에 따른 동시행동원칙을 어기고 미국이 이북에 대한 테러지원국지정해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6자회담관련정세 이명박정부의 공안탄압 방송언론 장악기도 등 민주말살 행패와 대응자세 등 전반적 정세보고 형태로 산상강연을 대신하다. 또한 우리가 오른 이산의 땅속 암반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편에 드는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 탱고(TANGO)가 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내려올 때는 오르던 길이 아니 다른 능선과 계곡을 거치는 길을 통해 청계산입구로 내려와 강담 김영식 이순영선생과 합류 조촐한 뒷풀이를 하고 9월의 북한산산행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8월 회원시사강좌 후기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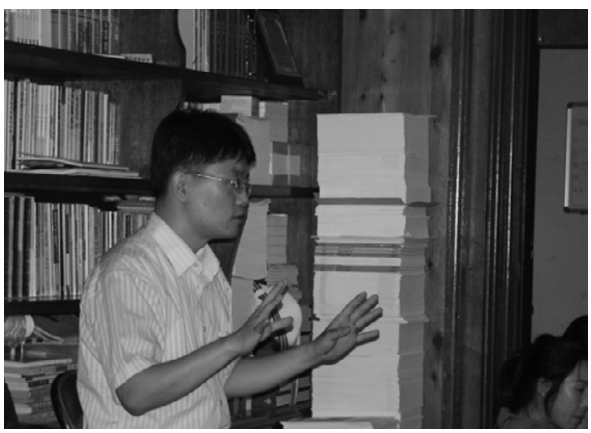
8월 중순을 넘어서 더위가 한풀 꺽일 때도 되었지만 좀처럼 가실 줄 모릅니다.

모두들 바쁘고 이명박 정부에게서 느끼는 피로감이 극에 다다라 공연히 무엇인가 명쾌한 것 유쾌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후원회 시사강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회원들의 호응이 필요하고 또 그런 취지를 만족시키는 강의를 해주실 분을 섭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3차례에 진행된 시사강좌를 통해 깨닫습니다.

이번 강의는 촛불집회가 수그러들고 광우병쇠고기 대책위의 활동가들이 대부분 구속되거나 수배대상이 되어 있고 진보진영이 매우 수세적인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이 시점에 현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이끌어내자는 뜻에서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원 곽동기박사가 '2008년 하반기 정세분석과 진보진영의 과제'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참고로 강의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 최근 세계 경제위기를 주도하는 미국의 경기침체 현상이 이명박정권의 성장중심 경제정책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747>이라는 헛된 공약에서 보여지듯 연평균 7%의 고강도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명박정부는 고환율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에 1,000원에 못미치던 원화는 6월말이 되자 1,060원대로 올라갔다. 이같은 이명박정권의 경제정책의 철저한 파탄은 미국의 달러경제 신봉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올해 초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건은 휘청이는 미국경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당연히 실패하였고 달러화는 꾸준히 약세기조를 헤어나지 못해 기름값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어버렸다. 무엇보다도 쇠고기 졸속협상으로 한미FTA비준마저 안개 속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제위기가 제2의 IMF 국면으로 치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미국은 '21세기 한미전략동맹' 이라는 이름아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관계를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각 방면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서 검증을 트집잡으며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아 동북아정세에 긴장을 몰아오고 있다. 미국은 친미.반북 성향의 이명박 정부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6자회담에서 장애를 조성하고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긴장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푸들노릇에 기꺼이 앞장선 이명박정권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대중들의 저항을 가져왔으며 8.15를 맞아 제100차 촛불집회의 촛불을 타오르게 했다.

당면한 정세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반미 등 자주화의 촛불을 들고 투쟁에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쇠고기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요구마저 공권력을 이

용해 폭압적으로탄압하고 외세에 빌붙어 대중의 삶을 송두리째 파탄내고 있는 이명박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우리의 삶과 나라의 자주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막아내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촛불이 조직화하기 전에 완전히 와해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여파로 100차를 맞은 촛불집회는 처음의 강도 높은 투쟁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투쟁규모에 비해 조직적 단결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대책위는 여전히 자연발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거 투쟁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자연발생적인 투쟁만으로는 탄압을 이겨낼 수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투쟁을 실패하게 된다

광우병투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명박퇴진 구호가 등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대중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대중들의 열의가 높은 지금 투쟁의 기세를 상승시켜 근본적 사회변화를 열어내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근본적 사회변화란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권을 행사하는 사회,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남북대결을 중단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주 민주 통일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끊임

없는 미국 밀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 약탈을 막을 수 없으며 국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민주 폭거가 멈추지 않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냉전체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전 국민들이 단일한 지도부아래 굳게 단결하여 올바른 전력과 전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지도부를 세워 효과적인 투쟁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날 많은 선생님들과 민가협어머니들 또 회원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오셔서 젊은 연구원의 정세분석에 귀기울였으며 뒤풀이 음식으로는 여름철을 나는데 좋은 닭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삼삼오오 앉아서 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유대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특히 가사에 바쁜 토요일에 일찌감치 와서 진행이나 뒤풀이 음식마련을 도와주신 회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알립니다

| 2008년 회원 시사강좌 | 10월 강좌 있습니다

■일 시 :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장 소 : 낙성대 만남의 집
■강 사 : 김상일 교수(한신대 전교수)
■주 제 : 우리 민족의 염원과 지향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8년 9월 15일 현재 총 55명 |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 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량	만기 일	수감 지	기/미결
오승록	군인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7.12.4	병역법	1년6월	2009/06	여주809	기결
윤문채	노동자	개인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9	집시,공용물건손상			서울구 183	미결
김형주	노동자	개인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27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구 1339	미결
이상돈	노동자	개인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9	특공 치상	항소중		서울구 75	미결
장옥기	노동자	건설노조(광주전남)	건설기계 순천투쟁	2008.3.10	집시법,특공			순천교 857	미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3년6월	2009/02	김천교 709	기결
양태조	노동자	민주노총	한미FTA반대(07) 등	2008.1.7	집시,특공			영등포구 3413	미결
정희성	노동자	민주노총(광주전남)	한미FTA반대집회(11/22)	2007.4.30	집시,공방	1년6월	2008/10	순천교 1622	기결
김재진	노동자	민주노총(전남)	광양항노동조합설립관련	2008.4.4	특공,업방			순천교 103	미결
마영국	노동자	용접공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7.2	특공 치상			서울구 186	미결
최용근	노동자	일간지 지국장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6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구 1561	미결
여우성	노동자	전해투	복직촉구 집회관련	2008.5.14	업방,명예훼손			서울구 1227	미결
김종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순천)	확약서 이행 촉구	2008.5.10	특공			순천교 170	미결
조순동	노동자	화물연대(대전)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0.22	업방,특공	8월	항소중	대전2672	미결
정창화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1.19	업방,특공	1년6월	항소중	대전1510	미결
정영철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0.31	업방,특공	1년6월	항소중	대전3161	미결
박정태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1.8	업방,특공	1년6월	항소중	대전2979	미결
이병식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0.31	업방,특공	1년	항소중	대전1462	미결
김홍석	노동자	화물연대(서경지부)	6월 총파업	2008.6.16	업방,공동상해			평택구 210	미결
양철봉	노동자	화물연대(전남)	6월 총파업	2008.6.17	업방,폭력			순천교 115	미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7년	2013/10	대전교 4009	기결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2007.2.1	국보	3년6월	2010/08	광주5051	기결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4년	2010/10	대구교 45	기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	2009/10	안동교 3010	기결
정재훈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7.5.22	병역법	1년6월	2008/12	영등포교 789	기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 방문	2006.10.23	국보	2년 6월	2009/03	전주교 2500	기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6월	2010/03	대전교 4003	기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4	국보	3년	2009/10	전주교 2510	기결
윤기진	재야	범청학련	범청학련,한총련 불탈퇴	2008.2.28	국보			서울구 96	미결
김종구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7.10.16	집시,폭력	1년6월	항소중	안양2251	미결
한기석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8.3.7	집시	1년6월	항소중	안양교 2441	미결
김장용	재야	전노련	노점단속반대	2008.7.9	특공,집시			서울구 113	미결
조덕휘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8.5.7	특공,집시			의정부교 780	미결
최인기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8.3.17	집시	2년	항소중	안양교 2710	미결
이정수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7.12.24	집시, 폭력	3년	항소중	안양1295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6.8	폭력,화염병,치사	3년+6월	2008/12	안동교 15	기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5.3	화염병,치사	4년	2009/05	장흥교 11	기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량	만기 일	수감지	기/미결
김치수	재야	한국사회당	양심에 따른병역거부	2007.9.13	병역법	1년6월	2009/03	여주교 1538	기결
허 연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주전남)	범국민대회(11/11) 관련	2007.11.21	집시,특공	1년6월	2009/05	장흥교 88	기결
유성현	학생	대학생	광우병쇠고기반대촛불집회	2008.6.23	공용물건손상			서울구 19	미결
김석철	인터2MB카페	비정규직	촛불항쟁(8/15 비폭력 직접행동)	2008.8.15				서울구 179	미결
양철수		비정규직	촛불항쟁(집회)	2008.8				서울구 22	미결
김용주		비정규직	촛불항쟁(집회)	2008.8				서울구 185	미결
우희수		비정규직	촛불항쟁(집회)	2008.8				서울구 37	미결
임상민	법원무원노조부산본부	사무차장	08년 촛불항쟁(법원전산망 영장 청구 기록 열람)	2008.8.23				서울구 111	미결
김동완		비정규직	촛불항쟁(집회)	2008.8				서울구 89	미결
최성훈		비정규직	촛불항쟁(집회)	2008.8				서울구 50	미결
송용철		비정규직	촛불항쟁(집회)	2008.8				서울구 29	미결
김창희		비정규직	촛불항쟁(집회)	2008.8				서울구 33	미결
백성진	촛불대방 매니저	비정규직	촛불항쟁(집회)	2008.8				영등포구 3809	미결
나명수		비정규직	촛불항쟁(집회)	2008.8				서울구 91	미결
최진규		비정규직	촛불항쟁(집회)	2008.8				서울구 171	미결
황도연		비정규직	촛불항쟁(집회)	2008.8				서울구 47	미결
김승칠		비정규직	촛불항쟁(집회)	2008.8				서울구 173	미결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광우병쇠고시수입반대 민주노총 파업(7/2)	2008.9.10				영등포경찰서	미결

감사드립니다

시사강좌를 맞아 구선옥님 포도1박스, 김혜순님 김치 찹쌀, 민가협어머님들 포도2박스를 선물해 주셨고,
추석을 맞아 대전교도소 최기영님이 맛있는 영양김 보내왔습니다.
또 안동교도소 정창윤님이 안동의 명물 안동간고등어 보내왔습니다.
회원 한희숙(의왕시)님이 늘 그랬듯이 멸치 한 박스 보내왔습니다.
조순덕어머니 김호현회원 나순석회원 추석맞아 만남의 집 선생님을 찾아
과일이야 참기름이야 맛있는 음식 잔뜩 선물하셨습니다.
바쁜 중에 잊지 않고 찾아주시거나 정성 가득한 선물 보내주신 것 선생님을 대신하여 감사인사 올립니다.

‘두 눈 잃은 빨치산’ 정종희 선생, 투병 끝에 운명
‘뇌농양’이 척추로 전이돼… 향년 74세.

‘두 눈 잃은 빨치산’ 정종희 선생이 ‘뇌농양(뇌 속에 고름이 생기는 병)’ 투병 끝에 1일 오전5시 4분, 운명했다. 향년 74세.

7월 말 1차 수술이후, 항생제 치료로 인해 언어장애와마비 증세에 시달리던 정 선생이 결국 고령의 몸으로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 정 선생의 조카손자 정길상씨는 “5일 전에열이 오르고 맥박이 떨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결국 척추로 농양이 전이돼 위급한 상황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1951년 토벌군의 총에 맞아 두 눈을 잃은 정 선생은 이후 60년 가까운 생애동안 통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월북했다가 남하한 조카를 만났다는 이유로, 1980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기도 했으며, 큰 조카의 아들은 같은 사건으로사형 당한바 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두 눈을 잃고도 오랜 옥고까지 치르면서 한결같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해 왔던 분이 통일조국을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특히,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집안에 서자로 태어나, 해방이후 남한 내 사회주의 운동, 빨치산 활동, 군사독재시절 통일운동 등 한국의 근대사를 경험한 정 선생이, 최근 그동안 꺼내놓지 못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준비하다가 세상을 떠나 더 큰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한양대학병원에서문상을 받은뒤, 3일 오전 정 선생의 고향인 전남보성으로 내려가 장례식과 노제를 치를 계획이다.

〈정종희 선생 약력〉

- 1933년 8월 전남 보성에서 출생
- 1946년 보성 회천소학교 졸
- 1947년 광주서중학교 중퇴
- 1950년 9월빨치산으로 일림산 입산
- 1951년 9월총기부상으로 양쪽눈 실명
- 1980년 11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 1988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출감
- 2008년 9월 1일 ‘뇌농양’ 투병 끝에 운명.

(통일뉴스에서 따옴)

01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7월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우리 공화국(북한)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더욱 광분했다"고 비난하다. 이번 기사에서 거론된 훈련내용 중 지상훈련으로는 △14-19일 '화랑연습' △21-22일 화학전 대비 합동연습 △24-25일 한국군 특공대의 대북전략전술 대상물을 목표한 침투훈련 등이다. 해상에서는 △14-20일 한국군의 상륙작전훈련 및 비상기동작전훈련 △7월 중순부터 10여일간 한국군 특전사령부의 해상침투작전연습 △16일 미군의 핵추진초대형항공모함인 '레건' 호 부산 입항 △19일부터 미군의 동.서해상 해상교통로확정과 잠수함 침투로를 위한 해상지형관측 △22-23일 서해상 한.미연합해상훈련 등이다. 공중에서는 "BC-135 전략정찰기 등을 동원해 7월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공중정탐행위는 90여차, 남조선괴로군의 공중점탐행위는 60여차로서 도합 150여차에 달한다"고 주장하다.

촛불집회 등 부당한 진압명령이 양심에 반한다며 휴가 중 부대복귀를 거부하고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을 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전.의경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소속부대인 중랑경찰서에 자진출두한 이길준이경을 중랑경찰서에 가서 면회를 하고 격려하다. 권오헌다녀오다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광우병쇠고기대책위원회 수배자를 격려방문하다. 소수영 안병길 김호현 모성용 임미영 권오헌 함께 하다.

민주노동당이 이북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정당교류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고 민노당 방북단 60여명은 김포-평양간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할 것을 합의하다. 방북일정이 8월 21~25일과 8월 22~26일 중 양 당의 사정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방북기간동안 양당은 대표회담을 비롯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정당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백두산을 공동 등반하여 '일본의 독도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규탄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반도평화선언을 선포하기로 하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마을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무건리 공대위)'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를 위한 주민 촛불문화제'를 열다. 80년대 초,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와 무건리 주민 250여 세대를 강제로 이주시키고 조성된 무건리 훈련장 550만평에 국방부는 1996년 오현리와 갈곡리, 양주 비암리 일대의 총 1,050만평 규모로 훈련장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오현리와 무건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촛불문화제에서 주병준 무건리 주민대책위원장은 각 시민단체와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의 성원에 고마움을 표하고 마을을 지키겠다고 나선 주민들을 격려하다. 윤한탁 경기북부진보연대 상임대표 배종렬 평통사 상임대표 김종일 '무건리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발언을 통해 무건리가 전쟁연습장이 되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다.

02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부시 방한 반대! 이명박 심판! 87차 촛불문화제'가 열리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2,000여 시민.학생들이 행사장을 메우고 '부시 방한 반대' 구호를 목청껏 외치다. 이날 경찰은 촛불문화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안국동, 종각, 광화문 등 도심에 경찰병력을 배치하다. 특히 8시경 촛불문화제가 끝나자 청계광장 일대를 경찰버스로 봉쇄하고 차벽 뒤에는 소위 '백골단'으로 불리는 '경찰관 기동대' 200여명을 배치하다. 참가자들은 을지로, 퇴계로, 명동 등을 돌며 부시방한 반대와 8.5촛불대행진 거리 홍보와 경찰폭력에 맞서다 4명이 강제연행되다. 모성용 김래곤 권오헌 함께 하다.

기륭비정규직여성노동자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기륭대책위)는 기륭여성노동자문제해결을 위해 각 정당 대표를 차례로 방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대표와는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한나라당 홍준표원내대표는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국회 홍준표 원내대표실 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으나 농성 3시간만에 이날 밤 11시 기륭전자 윤종희, 강희숙조합원과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상임연구원 시인 송경동집행위원장 작가 김연정씨를 강제연행 금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수도원성당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동생활인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산연합사회사목분과 등 공동으로 '촛불바람에 응답하는 제7차 천주교시국미사'를 열다. 신자와 시민 250여명이 함께 하여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이상윤신부 집전으로 미사를 마치고 촛불집회 수배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조계사까지 인도를 따라 거리행진을 벌이다. 그러나 종각부근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아 그 자리에 앉아 농성에 들어가다. 끝내는 신부수녀대표단만 조계사 출입이 허용되어 수배자를 만나 격려하다.

03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은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추방하는 등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다. 이북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3일자 북 〈노동신문〉에 게재된 특별담화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 모두 추방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는 남측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보

다 엄격히 제한, 통제 △앞으로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하여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 등이라고 경고하다. 특별담화는 "남조선괴뢰들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구실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매일과 같이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여왔다"며 "여기에는 이명박역도 자신과 《통일부》관계자들을 비롯한 괴뢰당국자들이 앞장서고 있으며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정당, 단체들이 합세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실명까지 담아 강도 높게 비난하다. 사건경위에 대해서도 '정체불명의 침입대상을 발견한 것은 7월11일 새벽 4시50분경 경계울타리로부터 북쪽으로 800미터 떨어진 지점이었다'며 '당시 전투근무 중에 있던 우리 군인은 이른 새벽의 시계상 제한으로 침입대상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서라고 규정한대로 요구했다'고 주장하다 또한 '침입자는 거듭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기 시작했으며 공탄(공포탄)까지 쏘며 어떻게 하나 멈쳐세우려는 우리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 끝내 발사된 총탄에 의해 스스로 죽음을 초래했다'며 '이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다'라고 하다. 담화는 이어 '금강산군사통제구역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군대의 엄격한 대응조치가 정황에따라 즉시 취해지는 최전방지역으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항시적인 격동상태에 있는 전투근무성원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있다'고 강조하고 남측의 '교전규칙'을 거론하기도 하다.

04 ----------

경기도 수원시 한나라당 앞에서 지난 1일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범청학련 21기 통일선봉대가 경기지역에서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되다. 경찰은 기자회견 도중 수차례 "불법집회를 빙자한 기자회견"이라고 방송하며 해산을 종용했고, 오후 1시 20분께 전경과 여경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투입해 대원들을 구타하는 등 폭력적으로 연행하다. 연행된 통일선봉대 대원들은 39명이며 현재 수원 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나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으로 '기륭문제해결과 연행자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다.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소 소장의 경과보고, 예수회 김정대신부 등 결의발언 기륭전자 홍종희조합원의 기륭전자 상황에 대한 규탄발언 민가협이영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낭독 등이 있었음

국회본관 앞에서 기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정희민주노동당의원을 격려방문하다. 권오헌 민가협회원 등

기륭문제해결을 촉구하다 강제연행된 박래군 송경동 김연정씨 등을 금천경찰서로 찾아 면회하고 격려하다. 이들은 이날오후 풀려나다. 권오헌 민가협회원 등

구로디지털단지 기륭전자 정문 앞에서 민주노동당원들이 기륭전자해결을 촉구하는 동조단식농성돌입기자회견을 하다. 이영희최고위원과 이상규 구로지역장 등이 결의발언을 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가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회장이 연대발언을 하다. 이보다 앞서 이날까지 55일간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소연 기륭전자분회장 유홍희조합원을 격려방문하다. 권오헌민가협회원

조계사에서 천막농성 31일째를 맞는 촛불수배자 8명도 이날 조계사대웅전에서 '부시반대 이명박심판 촛불승리를 위한 1080배'를 올리다. 광우병대책회의 농성단은 지난달 9일부터 매일 108배를 올리기로 했음

평양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2008판〉이 이날 개막되었다고 〈조선신보〉가 평양발로 보도했다고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아리랑의 초연은 2002년이며 2005년 2007년 상연에 이은 네 번째의 연속공연으로 2008년도판 아리랑은 과거작품의 단순재연이 아니라 많은 장면들이 수정개작되었다고 하고 또한 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는 아리랑과 같은 기간에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여! 도 함께 공연되며 '번영하라'는 낮에 '아리랑'은 밤에 공연된다고 하다.

광화문KT빌딩 앞(미대사관)에서 범청학련 21기 통일선봉대는 '한미동맹반대, 6.15, 10.4선언 이행 범청학련 21기 통일선봉대 수도권특별중대 발대식'을 갖고, 종속적인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하며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하다. 수도권특별중대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학생, 노수희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은 발언을 통해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중시'할 때만이 6.15, 10.4 선언을 이행하는 길임을 강조하다.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주최로 열린 '21세기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토론회를 열다. 장경욱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등은 미군과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SOFA 5조에 대한 특별 조치인 만큼 한정적.잠정적.특례적인 협정이라며, 다시 SOFA 5조로 복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매년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매년 직간접

적으로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데 쓰고 있음을 지적하다.

05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공동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장진숙씨가 자진출석에 앞서 장진숙씨 압수수색규탄신 공안탄압중단촉구기자회견을 열다. 장진숙씨는 2000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혐의로 3년수배 중 암투병을 하던 동생을 만나러가다 잠복중인 경찰에 연행 구속된 바 있음. 권오한양심수후원회장의 여는 말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박진영 홍익대부학생회장 등 규탄발언 장진숙씨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며 자진출두하는 입장발표 등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 현 공안탄압 정국을 규탄하고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다. 권오헌 이영 장진숙씨와 보안수사대에 들어가 출두요구에 항의하다.

청계광장에서 광우병대책회의 주최로 '부시방한 반대촛불문화제'가 열리다. 5,000여명이 함께한 문화제는 시작되기 전부터 경찰의 폭력해산과 강제연행이 자행되고 방송차량이 억류되기도 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사무국장, 설창익변호사 등 규탄발언으로 짧게 문화제를 마치고 거리 행진에 나섰지만 경찰이 청계광장을 모두 틀어막고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다. 시위대열은 종로1가 방면 등으로 진출하였으나 색소 물대포와 백골단 등 폭력진압에 나서다. 이날 밤 종각 네거리에서 종로 2,3,4가 을지로 퇴계로 명동 등으로 이동하며 폭력경찰과 맞서 '부시방한반대' '이명박심판' 시위를 계속하다. 사진기자 시민기자 인권감시단 민주노동당 당직자 기독교목회자 중학교 학생 등 167명이 연행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모성용 임미영 소수영 송창학 송지영 김래곤 권오헌 등 많은 회원이 함께 하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은 전국 대학생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생 재협상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재협상단의 활동을 소개하고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향한 대학생들의 각오와 결심을 표명하다. 기자회견에는 부시 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어청수 경찰청장, 미국산 미친소 가면을 쓴 대학생들이 대학생 재협상단에게 무릎을 꿇는 내용의 '프랜들리쉽'을 비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다. '대학생 재협상단'은 5,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부시 대통령의 방문지마다 따라가는 이른바 '그림자 투쟁'을 벌이기로 하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부시미국대통령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대표자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 선언 및 전면재협상 착수 이라크,아프간 파병 요구 즉각 철회 주한미군 지위변경 및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요구 취소 이명박 정부의 대미굴종과 국민탄압책동 즉각중단 등을 촉구하다.

보신각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병반대국민행동,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부시OUT! 이명박OUT! 공동행동' 집회가 열리다. 강민욱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의장 이수호 민주노동당최고위원 등 부시방한반대와 이명박심판결의 발언이 있었고 참가자들은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주한미군 지위변경 수용불가 △한.미FTA 즉각철회 등을 촉구하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범청학련 통일선봉대도 함께 하여 대학생들의 율동, 노래공연이 이어지다. 참가자들은 '부시OUT! 이명박OUT!'을 외치며 90차 집중촛불문화제 장소인 청계광장까지 행진을 벌이다.

서울공항 입구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30여 명이 부시 미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검문에 의해 서울공항 인근에서 억류되고 6명이 연행되다. 평통사는 지난 31일, 집회 신고를 성남수정경찰서에 신청하여 경찰이 이를 불허하자, 국가인권위에 '집회불허 통보로 인한 인권침해'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국가인권위 상임위는 "성남수정경찰서에 신고한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를 철회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음. 김종일평통사사무처장의 무건리훈련장반대집회와 관련체포영장을 가지고 와 연행하다. 부시가 공항을 빠져나가고 고착이 풀린 다음 대학생재협상단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진보신당 경기동부지역협의회 평통사 등 공동으로 '부시방한 반대집회원천봉쇄와 강제연행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회장과 김미희 민주노동당성남시협의회 대표 등의 규탄발언이 있었음

제주시청 앞에서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 굴욕외교 강요 부시 반대! 이명박 심판! 제주도민 촛불문화제'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카페들의 공동주최로 열리다. 주말에만 열리던 촛불문화제가 평소보다 많은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촛불문화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을 규탄하다. 안티MB 카페에서 '노MB'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제주청년회 청년우리 고용빈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성, 반민주성, 반통일성을 주제로 연설에 나서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성, 반민주성, 반통일성을 이번 부시 방문 때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보고 앞으로 남은 4년여 시간 동안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자"며 "그때까지 촛불을 한 주도 꺼뜨리지 말고 매주 촛불을 들자"고주장하다.

06 ----------

경찰청 앞에서 NCC 정의평화위원회 기독사회선교연대회의 목정평교회개혁실천연대 통일시대 평화누리 예술살기 감리교회사국대책회의 등 공동으로 '목회자 평신도 강제연행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ㅇ어청수경찰청장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해임 ㅇ폭력강제연행 지시한 현장책임자해임 ㅇ촛불문화제 구속자즉각 석방 등을 촉구하다.

07 ----------

서울 용산역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한국진보연대 소속 단체 및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각 지역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회의를 갖고 '광복 63주년 기념 8.15민족통일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광우병 촛불 운동을 민족존엄과 자주독립의 촛불로!'라는 목표와 함께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 규탄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 정책 반대 △예속적 한.미.일 동맹 반대 △' 건국절' 추진하는 보수세력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을 담아낸다. 참가자들은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일제시대에는 일본에, 지금은 미국에 굴종하며 온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사대정치인들에게 단호히 자주독립 만세를 외치자"며 "모두가 8월 15일, 자주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메워가자"고 호소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6단독 신재환판사 심리로 촛불문화제 관련 집시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순원 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다. 검찰은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위반 등 촛불문화제와 관련 공동정범혐의 등 기소요지를 진술하다. 이에 맞서 변호인과 황순원국장은 문화제형식으로 비폭력적원칙으로 다종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국민관심사를 표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항변하다. 이보다 앞서 광우병대책회의는 법원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황순원무죄석방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시위는 정당하고 미국산쇠고기수입재협상을 촉구하다. 임미영사무국장 방청하다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공동으로 건국60년기념사업중단촉구기자회견을 열다. 평화와 통일시민연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56개 단체소속회원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성명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규정지우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 책동이라며 건국절을 바꾸려는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다.

민주노동동은 경찰청 앞에서 '국민사냥 무차별연행 경찰청 규탄기자회견 을 열고 이명박대통령사과, 원세훈 행자부장관 어청수경찰청장 김석기서울경찰청장파면과 경찰기동대 해제를 촉구하다.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500여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공영방송지키기 촛불문화제'가 열리다.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기도를 규탄하는 문화제를 마치고 올림픽경기를 시청하던 참가자들을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리고 마구잡이로 강제연행하는 만행을 자행하다.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박성재 언론노조MBC본부장, 방송장악네티즈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성유보 상임위원장, 정창재전민국당 의원등 24명이 연행되다.

이북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최근 남측 상황과 관련 대변인담화를 내고 이명박 정부를 격렬히 성토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담화는 "역적패당은 반미, 반정부 시위에 나선 애국적 인사들과 종교인들은 물론 나어린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과거 군부파쇼독재시기의 '백골단'과 같은 '경찰관기동대'를 신설한것을 비롯하여 폭압역량을 대폭적으로 증강하고 악질적인 우익보수세력들까지 평화적 시위진압에 내몰고 있다"고 폭로한 뒤 "지어 현상금과 특진, 표창을 내걸고 경찰병력을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로 추동하고 있다"고 덧붙이다.

08 ----------

서울 세종로 통일부청사 정문 앞에서 통일부가 '남북교육자 상봉행사' 참가를 위한 '전 교조의 방북신청서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데 대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주최로 '민간교류가로막는 통일부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화해협력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이제는 민간단체의 대북교류를 공공연히 막아 나서기까지 하고 있다"고 규탄하다. 한상렬 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 정진화 전교조석부위원장 박태동 통일위원장과 평양 백두산 대규모 방북을 추진중인 6.15청년학생본부(8.14-18), 민주노총.한국노총(8.18-21), 민주노동당(8.21-25 또는 8.22-26) 등 통일부의 방북허가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박법수 6.15청학본부상임대표 황수연 민주노총통일위원장 황선 민주노동당자주평화통일위원장 등 규탄발언이 있었고 조성우 6.15남측위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정연주 KBS사장을 해임하려는 KBS이사회의 중단을 요구하는 언론방송계와 정당사회단체 등 각계인사들이 KBS본관 앞에서 '방송장악 들러리 KBS이사회 중단촉구기자회견을 열다. 경찰은 KBS 주변에 버스 60여대와 벽을 쌓고 경찰병력을 배치 이사회 반대시위를 막아나서면서 보수단체의 정연주퇴진집회를 허용하다. 이사회취재를 하려던 기자들과 이사회를 막아나선 KBS 직원들이 청원경찰과 사복경찰에 의해 끌려나오다.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인 남윤인순이

사는' 경찰병력이 있는데서 정상적인 이사회를 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이기욱 박동연이사 등도 ' 정연주사장에 대한 해임안건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다'며 문제제기를 했으나 유재천이사장은 친정부 이사들만으로 안건상정을 강행 12시28분 정연주사장에 대한 해임제정안을 변칙적으로 가결하다. 유재천이사장은 사복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가다. 이 소식을 듣고야 3당대표가 KBS로 달려와 한목소리를 내어KBS이사회의 변칙결정을 규탄하다.

KBS 이사회가 정연주사장해임제청안을 가결시킨 이날 여의도 KBS 본관 앞 민주광장에서 'KBS 장악저지를 위한 제93차 촛불문화제' 가 열리다. 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공영방송사수' 'STOP방송장악' 'OUT최시중' 'OUT조.중.동' 등 피켓을 들고 정연주사장 해임제정안을 규탄하다. 7일 연행되었다 풀려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성유보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상임위원장, 천정배 추미애 등 민주당의원들과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 (KBS피디협회장)등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기도를 규탄하다.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서울지역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명은 '조공외교 전쟁동맹 불평등한 한미동맹규탄대회' 를 열고 광우병쇠고기 전면재협상. 6.15공동선언 10.4 선언실천 평화통일실현 등을 결의하다. 이보다 앞서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서울지역통일선봉대 노동청년학생 빈민들이 참여하여 '제3회 미군없는 서울선포기지회견 및 2008서울지역 자주통일 선봉대발대식' 을 가지다.

보신각 앞에서 서울지역통일선봉대와 시민 등 500여명이 함께하여 '광우병쇠고기 전면재협상 6.15공동선언 10.4선언실천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서울대행진문화제' 를 열다. 노수희 통일선봉대장의 여는 말 '소풍' 등 청년회원들의노래와 춤, 노래극단 '희망새' 등 공연이 이어지다.

보신각 앞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600여명이 함께하여 '94차 촛불문화제' 가 열리다 대학생 문화패와 '소풍' 회원들의 율동 자유발언이 이어지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카페회원 전권희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행진에 들어가 종로2가에서 '폭력경찰 물러가라!' '백골단해체하라!' '독재타도' '이명박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폭력경찰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11시가 지나 명동성당에서 정리집회를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부르며촛불을 지킬것을 결의하다.

10

헌법재판부 전원재판부는 재독사회학자 송두율교수가 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주요임무종사자(간부)조항과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무죄가확정되어 심판대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이날 알려지다.

강남구에 있는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은사 주최로 '독선과 오만 거짓 이명박정권 규탄사국볍회' 를 열다. 스님과 신도 등 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명진스님은 '다종교사회에서 자신의종교를 드러내는 것은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유발시킨다'며 이명박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다. 김형남조계사자문변호사도 '조계종총무원장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조계수장 어른을 범죄자로 여긴 꼴'이라며 경찰행패를 규탄하고 황채운 신도회수석부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는 o이명박정부의 종교편향사과 o어청수경찰청장 등 관련공직자 파면 o종교관련 법령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봉은사 20만신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명박정부의 종교편향에 맞서겠다' 고 하다.

11

한국진보연대는 전국 165개 경찰서 앞에서 '어청수경찰청장 파면' 과 '백골단해체' 를 촉구하고 동시다발 1인시위에 들어가다. 1인시위에 들어가기 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간 진행된 촛불시위에서 경찰은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여대생을 군화발로 짓밟고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과 최루액을 살포하고 미성년자와 노약자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력행사했다 며 그로 인해 부상자 2,400여명과 불법강제연행자 1,300여명에 이르렀다고 밝히다. 경찰청 앞에서는 한상렬상임공동대표가 1인시위를 하다.

미국정부는 6자회담 합의사항인 8월 11일까지 실행하기로 했던 이북에 대한 '테러지원국지정해제' 를 하지 않아 행동대행동원칙을 지키지 않다. 미국무부 로버트우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강력한 핵검증체제에 합의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 테러지원국지정해제를 위한 의회동결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당장 해제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다. 6자회담에서는 2.13합의와 10.3공동선언을 통해 이북이 정확한 핵프로그램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지정명단에서 삭제하기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고 이북이 6.25핵신고서를 (중국에)제출하자 부시대통령은 26일 이북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해제할 방침임을 의회에통보한바있음.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문화제와 관련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안진걸 대책회의 조직팀장이 이날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나다.

12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제 107차 반미연대집회

가 열리다. 평통사, 무건리주민대책위,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민자통, 범민련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추모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집회에서 학생.시민사회단체 회원 80여명 등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고 대미종속을 고도화하는 대북선제공격 연습인 UFG연습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다.

광화문미대사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주최로 '대북테러지원국해제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핵검증제제는 테러지원국해제 전제조건이 아니다'며 미국정부는 즉각 해제조치하라'고 촉구하고 한상렬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여는말 황선 민주노동당자주평화통일위원장 용리브가서울대련의장(숭실대총학생회장)등 촉구발언이 있었음

이북지역 장전항동북부 78KM 해상에서 남측의 모래운반선박과 북측 어선이 이날 새벽 2시 35분 충돌하여 북측어민 2명이 실종되고 2명은 구조된 것으로 정부당국이 밝히다. 남측모래운반선 '동이1호(658톤)'는 장전항일대의 모래를 운반해 남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6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소연기륭전자분회장이 단식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었던 소금과 효소를 끊어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소연분회장은 병원후송과 응급조치도 거부하고 있어 기륭전자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다.

광우병대책위 활동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한국진보연대 인권국장 황순원님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범청학련의장 윤기진님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소수영 임미영 권오헌 다녀왔습니다.

한국진보연대 후원을 위한 후원주점이 열리다. 김호현 소수영 임미영 권오헌 함께하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전철연 등 공동으로 '재벌총수 면죄부사면반대 양심수사면촉구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정권 비리사면 온 국민이 분노한다'며 양심수사면을 촉구하다. 이광렬 구속노동자후원회사무국장 사회로 임기란 민가협전의장의 여는 말에 이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허영구 민주노총부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인 이용석 씨 '일심회'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정훈 씨의 부인인 구선옥씨 등의 사면촉구 발언이 있은 뒤 kncc의 황필규 목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청와대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다.

13 ----------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새벽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에 항의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체포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며, 박 위원장의 석방과 어청수경찰청장파면을 촉구하다. 박 위원장은 13일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진행된 한국진보연대 후원 주점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도중,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상시적으로 배치돼 있던 경찰병력에 의해 연행당했다.

이북과 일본은 11~13일까지 중국심양에서 6자회담 조.일 국교정상화실무회의를 열고 일본인 납치피해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올 가을까지 재조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하다. 또한 일본은 이북이 재조사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인적왕래와 전세항공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하다. 그 외 일본항공기 요도호 납치범들의 인도에 협력하기고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이북에서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교섭담당대사가 일본측에서는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카 아키다카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대표로 참석하다.

12일 새벽 이북어선과 충돌 어민 2명이 실종되는 사고를 낸 남측의 '동이1호'가 사고 하루 만에 남측으로 출항했다고 통일부가 밝히다. 북측 조선진영무역회사는 10시30분 남측 아천글로벌에 통지문을 보내 '우발적인 사고로 민간급차원에서 해결하도록하자— 빠른 시일안에 남측 선박을 내려보내고 해당부문관계자들과 고성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전해왔다고 하다.

서울역 광장에서 광우병 대책회의주최로 '어청수파면 하루 10만서명운동선포기자회견'을 열다. 서울역을 비롯 전국 120곳에서 진행하기로 한 '어청수파면' 이유로는 0전.의경 강제노숙 0폭력진압배후조정 0폭력진압으로 국제사면위로부터 인권탄압지적 0조계종총무원장과잉검문 및 종교편향 0경찰버스로 이용한 서울광장원천봉쇄 등 상습적인 불법주차와 교통방해 0촛불집회 참가자 추석검거협박 등을 꼽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노동권보장 않는 고용허가제 규탄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고 촉구하다. 공동행동은 "정부는 고용허가제라는 합법적인 외국 인력 제도가 있으니 더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필요 없다며 단속과 추방 정책을 고수하며

이주노동자들을 내쫓는 데 여념이 없다"고 현 실태를 비판하고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온 이래로 20여 년 동안 미등록 aa이주노동자들에 의존해 일손이 부족한 공장을 돌리는 것을 정부가 정책 아닌 정책으로 삼아 왔다"고 정부 태도를 지적하다. 공동행동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무엇보다 사용자에게 극도로 종속시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제도 자체가 순전히 사업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게다가 3년이라는 단기 체류 허용은 분명히 미등록 체류자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똑 같은 노동자며 모든 노동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비롯한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다.

14

육군 1군단 정문 앞에서 범청학련 등 40여개 시민단체 회원 250여명은 '파주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집회에서 통일의 길목인 파주에 한미공용훈련장을 확장하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이어 파주시 오현리 마을로 이동해 무건리훈련장 확장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선포식을 가지다.

탑골공원앞에서 민가협 72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헌 공동대표의 6.15특별사면양심수제외와 건국60년행사규탄 여는 말을 했고 일심회사건 구선옥님의 양심수가족발언으로 8.15부정비리재벌총수 등 사면규탄발언 재미청년회회원들이 조국방문소개 등이 있었음

보신각 앞에서 100여개 종교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헌법파괴 임시정부법통부정 건국절추진 이명박정부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대한 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등 24개 단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19개 독립운동단체 민족자주연맹 등 20개 민족운동단체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321개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등 4개 정당이 함께 하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광복 63주년 기념 8.15민족통일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각계대표 350여 이름으로 '광복 63주년 8.15민족자주선언' 선언을 발표하다. 참가자들은 광복 63돌을 맞아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지위변경 등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단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하며,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일본은 독도의 영토주권 침범과 군국주의 부활야욕을 중단,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 배상을 요구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맹목적 한.미동맹정책과 친미, 친일굴욕외교를 중단하고, 자주외교에 나설 것 △반통일적인 민족대결책동 중단, 6.15, 10.4선언 실천에 즉각 나서고,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 △한미FTA와 공기업 민영화, '교육개혁', '규제완화' 등 '부자만의 정책' 즉각 중단, 공안탄압과 언론장악시도 등 민주주의 파괴책 중단 및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등을 촉구하다. 오종렬 진보연대대표, 정상덕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공동대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민주노총 황수영 통일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만 수석부위원장 등이 결의 발언을 하다.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경찰에 전격 연행되다. 한국진보연대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서울 영등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앞에서 연행 돼 종로서로 이송조사를 받고 있다. 한상렬 대표는 광우병 촛불시위와 관련 경찰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받은 바 있음.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학교 문화관 대극장에서 전국 각 지역의 대학생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주최한 '광복 63주년 자주독립 8.15문화제'(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촛불로 독립선언)가 열리다. 이날 문화제는 당초 숭실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숭실대학교 학교본부가 문화제 개최를 일방적으로 불허한 가운데 급작스럽게 장소가 변경되다. 참가자들은 광복 63주년을 맞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명박 정부와 일부 보수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건국 60주년'에 대해 비판하고 건국과 정부수립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며 8.15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실천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히다. 촛불집회와 관련 수배 중인 강민욱 한대련의장의 여는 말 강기갑 민주노동당대표의 격려말 등이 있었고 놀이패 '걸판'과 중앙문예단 등 노래와 춤 아스팔트 농활대 등이 참여 광복절 전야제 의미를 밝히다.

15

광복절 63돌을 맞아 이명박정부의 건국60주년행사를 비판하여 민족단체와 통일운동 사회운동단체 정당들이 각기 광복63주년 각종집회 결의대회를 열다. 항일독립운동 단체들은 탑골공원에서 8.15광복절 63주년기념국민대회를 열었고 같은 장소에서 광복63주년 기념8.15민족통일대회추진위원회는 '역사왜곡규탄식민지잔재청산 독도수호 민족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오후에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8.15민족통일대회를 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도 정부의 건국 60년행사에 불참하고 효창공원 백범묘소를 참배하고 광복절행사를 했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는 백범기념관에서 '광복63주년 8.15민족통일대회'를 열다(후원회소식202호 우리의주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회장은 촛불문화제와 관련 부당하게 연행되어 구금되어있는 한상렬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와 박

석운 상임운영위원장 등 종로경찰서에 가서 면회하고 격려하다.

'광복절63주년기념 8.15민족통일대회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광복절 63주년기념 8.15민족통일대회'를 5,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마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 100차 촛불문화제와 함께 하려했으나 경찰은 청계광장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고 행진도 불허하는 반민주야만행패를 자행하다. 대회참가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 남대문로- 한국은행 앞과 중앙우체국앞으로 이동 기습적으로 차도로 뛰어들어 '타도이명박' '해체 한나라당' 을 외치며 시위에 들어가다. 7,000여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광우병 대책회의 주최로 100차촛불문화제를 선언 진행하다. 김덕윤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외 4명이 국민선언문을 낭독 국민이 반대하는 위험한 정책을 밀어부치는 이명박정부를 규탄하다. 그러나 15분도 안되어 경찰의 해산경고방송과 함께 색소물대포를 쏘면서 폭력진압에 나서다. 시청 -남대문- 종로방향 등을 틀어막고 백골단과 사복경찰이 무차별적인 강제연행을 자행하다. 시위대는 명동쪽으로 다시 종로로 진출하며 폭력경찰에 맞서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계속하다. 종로2가 청계2가 등으로 옮기면서 새벽까지 시위를 하는 동안 158명이 강제연행되다.

16 ----------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판사는 음향장비대여업자 김아무개씨 등 2명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신청' 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이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촛불집회주최측에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대여한 뒤 장비가동을 위해 주최측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연행되어 집회참가혐의로 운전면허취소를 당했음. 법원은 이들이 직접 차량을 몰아 교통방해한 일이 없는데도 운전면허취소까지 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이렇게 판결하다.

17 ----------

서울 대학로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 4년을 맞아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노동자 공동행동) 주최로 '야만적 단속추방 중단 ·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이주노동자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웠는데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내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다.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은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을 일회용품 취급하며 쓰다 내버리는 정책을 고수하려 하는가"라며 "이주민 100만명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권리 박탈을 정당화하는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하다.

2001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과 함께 북녘 조국으로 송환되셨던 김인서선생님이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아 오시다 이날 8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9.2송환비전향장기수 가운데 이제까지 세상을 떠나신 분은 리종환(2001.4) 윤용기(2001.6) 신인영(2002.1) 김종호(2003.11) 강동근(2004.2) 김석형(2006.8) 오형식(2006.9) 김영태(2008.1) 김익진(2008.7) 선생님에 이어 김인서선생님이 8.17일 타계하셨습니다. 그리고 1993년 3월 인민군종군기자로 활동하셨던 리인모선생님은 가장 먼저 북녘노국으로 가시었다가 2007 6,16일 서거하시어 인민장으로 모셨고 열한 분 모두 평양교외 애국열사릉에 모셔있습니다. (후원회소식 202호 보심)

18 ----------

경기도 성남시 소재 청계산 한미연합 전쟁지휘소인 탱고(TANGO)기지 앞에서 평통사 등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이 'UFG연습 중단 촉구 집회'를 가지다. 참가자들은 이번 연습이 최초로 한국군 주도로 열리는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번 연습이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북한의 반발을 일으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다. 참가자들은 이날 '반전평화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해 "이번 연습에 해외 미군 5천명 등 미군 1만명과 한국군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5만 6천명이 참가하며, 정부 연습에는 약 4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으로, 그 자체가 대북 무력시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다.

이북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전쟁도발을 목적으로 하는 침략적인 합동군사훈련'이란 논평에서 '이번 전쟁연습은 이른바 남조선괴뢰군이 주도한다는 명목밑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해외주둔미군무력 1만명이 참가하여 수십만명의 남조선괴뢰병력과 향토예비군무력 정부공무원까지 동원된 훈련'이라고 밝히고 '호전광들은 을지프리던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에 방어훈련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명백한 우리공화국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이란 것이 더 논할 여지도 없다'고 성토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한편 이날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대변인도 담화를 발표 미군측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하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걷어치워야한다'며 '우리의 주권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무자비한 보복타격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경고하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과 관련 예비역 장성초청국방정책설명회에서 '우리군은 도발의 빌미를 주지않도록 노력하되 도발의 징후를 포

착할 시에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투사해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하다. 이는 지난 3월 김태영 합참의장의 '대북선제타격론'에 이은 또다른 '대북선제공격론'으로 대결지향의 도발적 발언이다.

광화문 우체국 6층 북한자료센터에서 8월 '장기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북영화보기'가 있었습니다. 김선분 김영식 박정숙 송세영 이순영 이윤 정혜열 선생님과 박창희 교수님 부부 김래곤 한찬욱 회원 함께 했습니다.

19

종로경찰서 앞에서 광우병 기독대책회의와 예수살기 공동으로 '한상렬 목사 구속규탄 및 공안탄압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촛불의 진짜 배후로 이명박 정권'이라며 '한상렬 목사를 석방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하다. 마치고 박덕신 문대골 김경호 목사 등 20여 명이 한상렬 목사를 면회하다.

20

금속노조 도루코 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하다. 도루코 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을 무기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사측 노조 말살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도루코 지회에 따르면 도루코 문막공장 4개 하청업체 중 하나인 아무개사 사장이 조합원들과 개별 접촉해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약점을 잡아 이를 무기로 노동조합 탈퇴서, 체불임금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 지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루코 문막 공장 앞 인도에 약 7m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세우고 고공농성에 돌입했으며 "사측이 노조탄압을 중단할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다. 도루코 지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노동조합 인정, 불법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며 260여일 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북의 로동신문은 '오늘 북남관계는 6.15공동선언이후 최악의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명박역도가 들고 나온 실용주의는 반민족적인 상호주의의 재판으로서 북남관계를 장사치의 관계로 전락시키는 반민족적 반통일론'이라고 성토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은 또한 '북남협력사업은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에서 북남관계문제들을 화해와 협력통일에 부합하게 해결해 나가며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민족문제를 우리끼리 의 입장과 관점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훈계하다.

21

'후원회소식 202호' 교정작업이 충무로 창미디어에서 있었음. 권오헌 임미영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우토르문제 – 대책위주최로 이른바 인혁당사건으로 사법살인당한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재일 우토로 동포들이 함께한 가운데 '소위 인혁당사건 통일열사 유가족우토로살리기 5000만원 기부금전달식'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운영위원 송경용 신부님의 어머님이 오랫동안 지병으로 투병해오시다 별세하셨습니다. 김호현 소수영 임미영 안병길 권오헌이 보라매 병원 빈소를 찾아 문상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2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이 단식농성 73일 째 병원으로 후송된 지 6일만에 다시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며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회사 경비실 옥상에 오르다. 김 분회장은 병원에서 경비실옥상으로 자리를 옮기며 "기륭전자는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륭전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의 응급조치로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수액을 맞으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기륭전자가 보도자료를 통해 "시위대를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가디언(UFG) 마지막 날을 맞아 평통사 범남본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성남평화연대 통일선봉대 등 40여명은 한미연합사 전 지휘소인 청계산 탱고 앞에서 전쟁연습반대 평화시위를 정리하는 집회를 갖다. 유한경 평통사국장의 경과보고 이규재 범남본의장 김미희 민주노동당성남시당위원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통일선봉대 수도권중대 김희동대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통일선봉대원들의 율동 등 전쟁반대 미군철수 등 구호를 외치며 마치다

영등포 대영빌딩 한국진보연대회의실에서 '한국진보연대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안탄압저지 민주수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과과 북측조선사회민주당공 동으로 '일본의 독도침략야욕규탄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양당은 '우리민족에게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사회와 배상은 커녕 민족고유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고 하고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더욱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고 규탄하다. 이 공동입장은 민주노동당이 방북하여 백두산에서 두 당이 함께 발표

하려 했으나 정부의 방북불허조치로 남북이 서울과 평양에서 따로 발표하게 되다.

소식지 발송작업이 있었습니다. 문상봉 박희성선생님 조순덕어머니 변외성 유수남 송지영 모성용 소수영 임미영 함께 했습니다.

23 ----------

이북의 〈통일신보〉는 부고를 통해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바쳐온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윤성식 선생이 주체97(2008)년 8월 14일 18시 15분 심장병으로 71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고 보도했다.
부고는 윤성식 전사월혁명연구소장이 "1937년 5월 14일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에서 출생"했으며, "해방 후 여러 재야통일민주운동단체들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적극 벌려왔으며 공화국북반부에 의거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모든 힘과 지혜를 바쳐왔다"고 하다. 부고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조국통일성업에 이바지해온 윤성식 선생의 공로와 애국적 장거를 평가하시여 그를 조국통일상 수상자로, 사회정치학 박사로 내세워주시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었다"고 전했다. 그는 타계하기까지 노동신문, 민주조선, 평양방송 등에 기고를 하거나 출연해왔으며, 2007년 8월 북한 정령을 통해 조국통일상을 받았으며,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칠순 잔칫상을 받기도 했다.

후원회 소식 202호를 1055명에게 해외 16부를 발송하다. 양심수에게 후원회소식과 민족21 52를 발송하다.

회원 시사강좌 8월 월례강좌가 열리다.(별도 기사보심)

24 ----------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8월 산행이 있었음.(산행기보심)

25 ----------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948년 8.24일 체결한 '한.미잠정군사협정 60돌'을 맞아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한미동맹관계를 비난했다고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서기국보도는 '이 범죄적이며 굴욕적인 협정에 따라 미국은 남조선에서 괴뢰군을 조작하고 북침전쟁의 총알받이로 길들였으며 1950년 6.25괴뢰군을 몰아 공화국을 압살하기위한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며 '그 후 미국은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빼앗아 내고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과 〈행정협정〉등 예속적인 조약 협정 등을 맺어 남조선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강화해왔다'고 비난하다.

26 ----------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을 해온 오세철, 정원현, 남궁원, 오민규 최영익 박준선 양준식(이상 서울) 정원현(군산) 등 7명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오후 1시 사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남대문경찰서 보안과에 의해 긴급 체포돼 남대문서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직후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컴퓨터, 씨디(CD), 서적, 수첩 등을 증거자료로 압수한 것으로 알려지다. 사노련은 지난 2월 발족하여 공개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회주의 지향 노동운동단체였음. 공안당국은 사노련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1항 국가변란목적 선전선동과 5항 이적표현물 채택반포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서울고법형사합의부(재판장박홍우부장판사) 심리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항소심결심공판을 열다. 검찰은 전상봉전의장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등을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이승호 현회장과 정대일씨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다. 다음 공판을 9월 25일 에 있음 권오헌 회장방청하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은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10.3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이에 대해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하다. 성명은 특히 "10.3합의에 따라 진행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고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됐고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미국이 말하는 국제적 기준이란 곧 1990년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들고나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초래했던 특별사찰"이라며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검증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 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라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주장했다.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를 결성하다. 참가자들은 결성선언문을 통해 "1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범국민적 '민주주의 수호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열사들의 영정 앞에 엄숙히 맹세한다"고 결의하다. 19회 범국민추모제 9월 3일 서울, 경기, 인천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의 합동으로 마석모란 공원 벌초행사로 시작된다. 또, 21일 임진각 '분단 통일 열사. 희생자 거리 추모제' 등 창원, 광주, 대구, 서울 등에서 열사거리가 조성된다. 6일 부산.경남.울산지역 솔밭산 열사묘역 순례, 20일 광주전남 지역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를 거쳐 27일 본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27

종로구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양심수후원회 등 사회단체와 가족들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규탄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되찾자"고 주장하다. 연행된 이들은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법률대응팀 구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의장 윤기진(33)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구금일수 180일을 선고하다. 이날 선고 후 통일애국청년윤기진의장석방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판결에 저항하다. 김규철 범민련남측본부서울시연합 명예의장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 유영빈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등은 발언을 통해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개탄하고 국보법철폐를 주장하다.

이북의 로동신문은 '반민족적인 북남관계차단책동'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이명박패당이 북의 동포들과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려고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의 공화국 방문을 모조리 차단시키는 것은 그들이 북만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대결상황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고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또한 '이명박패당을 두고서는 북남사이의 진정한 대화는 물론화해와 협력도 통일과 번영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물보듯 명백하다'고 입장을 밝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에 반발해 온 불교계가 불교행사 사상 가장 큰 규모의 '범불교도대회'를 열다. 전국의 각 종단 스님과 신도 10만여 명은 이날 열린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에서 종교편향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외에 △어청수 경찰청장 등 종교차별 공직자 즉각 파면, 엄중문책 △종교차별 금지 법제도화 추진 △시국 관련자에 대한 국민대화합 조치 실시 등 4가지를 실시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하는 '범불교도대회 결의문'을 발표하다. 본대회에 앞서 조계사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의장이며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을 비롯하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스님 등 각 종단 대표들이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은 사과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앞장서 행진하다 범불교도대회 봉원위원회 위원장인 원학스님은 봉원사에서 '우리가 대법회를 갖는 이유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끝내기 위해서이다. 사람과의 소통 종교간의 소통 계층간의 소통이 넘사이 소통을막은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서이다'라며 소통없는 이명박정부를 규탄하다. 불교환경연대대표인 수경스님은 지금 우리사회는 대통령 한사람의 비뚤어진 공교육약화 언론장악공기업혼란에 빠뜨리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회양극화 공교육약화 언론장악 공기업민영화' 등 정부의 국정운영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명박장로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강하게 규탄하다. 또 '지금 이명박정부는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룬 민주주의성과에 무임승차하고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며 과거 비참한 말로를 보여준 전.노씨에게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다. 마치고 태평로-세종로-조계사까지 행진하다.

28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평통사 무건리주민대책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 등 13개 단체 공동 주최로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가지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방위비분담제도가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뒷받침함으로써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다.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 박성은 참여연대군축센터팀장 안신정 범남본홍보위원장 등의 방위비분담금 협정폐기와 분담금중단결의 발언이 있었고 참가자들은 '국민혈세 다 퍼주는 묻지마 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이후 이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 시위를 이어갈예정이다.

탑골공원 앞에서 광우병대책회의와 민가협공동으로 촛불

양심수석방과 수배자해제를 촉구하는 722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상임의장의 여는 말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한용진씨 부인 황정주씨 안티 2mb카페 회원인 닉네임 '너럭바위'씨 임태훈대책회위 인권법률팀장 등이 공안탄압중단과 양심수석방 수배해제 촉구발언을 하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광우병 대책회의 주최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촉구 국민청원기자회견'을 열고 114,050명의 이름으로 된 '어청수경찰청장파면촉구를 위한 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다.

29 ----------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알리안츠생명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 생명보험노동조합 알리안츠생명지부(지부장 제종규)가 '파업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다. 이날로 총파업 220일차, 직장폐쇄 106일차를 맞은 알리안츠생명지부 300여명의 조합원들은 결의대회에서 단체협상을 파기하고 직장을 폐쇄한 경영진에 대해 퇴진을 촉구하는 한편,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다. 남궁중 알리안츠생명지부 총무부장은 "기륭 동지들의 목숨 건 단식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복직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며 결의를 다지다. 알리안츠생명지부는 2008년 1월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로 파업을 시작하게 됐다. 회사는 지난 4월1일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 92명을 "지점장은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관리자 신분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상 노조원에서 제외된다"며 해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양심수후원회가 함께 하여 방위비 분담금2차협정에 즈음한 이틀째 피켓시위를 진행하다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미2사단이전비용 왜 우리가 퍼주기협상중단하라' '조공외교 중단하라'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유영재평통사정책실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등 방위비분담협상 등 발언을 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오세철교수 등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다. 재판부는 사노련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렇게 결정하다.

08년 여름 역사기행을 강원도 봉평일대와 오대산을 다녀오다(별도 기사보심)